

A TAEWON ENTERTAINMENT PRODUCTION

a film by John H. Lee

(가제) 인천상륙작전
OPERATION CHROMITE

based on true events

Screenplay by Man-hee Lee & John H. Lee

1. [PROLOGUE:]

A. 압록강 - 낮

압록강 철교를 건너는 화물기차. 소련제 탱크가 줄지어 이동되고 있다. 화물칸마다 서있는 소련군인들.

B. 신의주 역 - 낮

역에서 도열하고 있는 인민군(북한군), 소련제 탱크들을 실은 화물기차가 역내로 들어와 멈추자, 군악대가 광파례를 울리고, 인민군 장군이 탱크를 건네주는 소련군 장군과 경례를 나눈다.

자막: 1945 년, 한 나라가 둘로 쪼개지게 되었다.

C. 평양 광장 - 낮

소련제 탱크가 사열하고 있다. 포탑에 상반신을 드러낸 전차병들이 사열대를 향해 경례를 붙이며 지나간다. 사열대 단상 위, 인민군 지휘관들이 경례를 받고, 뒷짐을 진 최고사령관은 오른손을 들어 화답한다. 퍼레이드를 벌이는 탱크들을 보며 환호하는 인민군과 평양시민들...

자막: 남쪽은 "대한민국," 북쪽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다.

D. 38 선 (6.25 자료화면) - 낮

소련제 탱크들을 앞세우고 38 선을 넘어 남침하는 인민군. 힘 한번 못써보고 후퇴하는 국군.

자막: 두 집단은 서로를 "괴뢰"라 부르며 1950 년 6 월 25 일, 전쟁을 치르게 된다.

E. 낙동강 전선 (6.25 자료화면) - 낮

국군과 인민군, 최후의 보루인 낙동강 전선에서 치열하게 전투를 벌이고 있다.

자막: 전쟁 개시 한달 후, 대한민국은 낙동강 지역을 제외한 모든 영토를 뺏기게 되고 소멸위기에 놓인다.

F. 교차:

당시의 핵심인물들이 보여진다: 리승만, 김일성, 트루먼, 스탈린, 모택동 등, 모두 미소 짓는 모습이다.

2. 낙동강 전선 - 낮

장학수 (30 대) 를 비롯한 8 인, 인민군복 차림이다. 강봉포(막내, 무전병); 남기성(연장자); 송상수; 오대수; 천달중; 양판동; 조인국... 그들은 두 대의 지프에 분승하여, 낙동강 전선의 북단을 지나고 있다. 지프 중앙에는 기관총이 높게 장착되어있다.

주변에서 포성과 포연이 난무한다. 긴장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여유만만하게 담배를 피우며 이동중인 그들.

3. "북진" 시퀀스¹ - 낮

여전히 지프를 타고 길을 가는 장학수와 대원들. 산을 넘고, 내를 건너, 평야를 간다. 계속 북진하는 8 인... 인천항의 항만 길로 진입하는 그들. 인천 앞 바다에 고깃배들이 떠있고, 갈매기들이 한가로이 날고 있다. 전쟁 중인데도 도시는 하나도 허물어지지 않고 아름다운 보스턴 풍의 항구 느낌을 유지하고 있다.

¹ 서부영화 느낌

4. 인천 시청 앞 광장 - 오후

시청을 지키고 있는 탱크 2 대와 필력이 있고 있는 인공기가 눈에 들어온다. 시청건물에 크고 붉게 쓰인 플랜카드가 보인다.

“인천 인민은 해방되었다”

탱크 앞으로 인천 시민들이 한가로이 오가고 있다. “고요한” 인천 광장을 지나는 장학수 일행, 의외로 인천시내의 평화로운 광경에 다소 놀란다. 조금 더 가자, 인민군 병사들이 사열하듯이 열을 지어 ‘착착착’ 이동하고 있고, 인민군 차량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다. 건물 곳곳에 시민들이 창가에 서서 공포가 몸에 밴 듯, 불안한 눈빛으로 창 밖을 내다보고 있다.

그때, ‘또각또각’ 소리를 내며 걸어가고 있는 **한채선** (20 대), 낡은 서화집을 품에 끼고 있다. 그녀의 담백한 미모가 장학수와 대원들의 눈을 단번에 사로 잡는다. 도회지 풍의 한채선, 커트머리에 하늘하늘한 옷이 잘 어울린다.

속도를 늦추는 두 대의 지프. 한채선이 쳐다보지도 않자, 그녀를 지나쳐 지프가 멀리 사라진다. 멀리 인민군 사령부대가 보인다.

5. 인천 인민군 방어지구 사령부 초소 - 해질녘

인민군 사령부대 초소 앞에 당도하는 장학수와 대원들. 장학수가 다가오는 초소병에게 뭐라고 얘기하자, 초소병이 깜짝 놀라 경례를 하며 바리케이드를 치워준다. 통과하는 장학수와 대원들. 해가 뉘엿뉘엿 서쪽으로 지고 있다.

부대 안의 정황들이 장학수의 시야에 들어온다. 엄청난 스케일이다:

인민군 병사들, 오와 열을 맞추어 어디론가 이동하고 있는 모습이 여기저기 보인다. 잘 훈련된 모습이다. 곳곳에 일제시대 때의 석조건물들이 눈에 띈다. 건물 입구마다, 샌드백 모래주머니 병커가 양 옆에 있고, 곳곳에 보조병들이 로봇 병정들 같이 서있다. 기관총들도 보인다. 경계가 삼엄하다. 연병장에는 트럭들이 빼곡하게 정렬되어있고, 장갑차도 여러 대가 배치되어있다.

6. 인천 인민군 방어지구 사령부, 사령관 실 앞 - 계속

류장춘이 기다리고 있다가, 절도있게 경례를 붙이며, 장학수 일행을 맞이한다.

류장춘: (미소를 띄며) 전, 인천 방어지구 사령부 작전참모 상위,
류장춘입네다. 어서 오시라요. 기다리고 계십네다.

류장춘, 안경을 끼고 깡깡하고 스마트해 보이는 인상이다. 류장춘의 안내를 받으며 지프에서 내려 어슬렁어슬렁 안으로 들어가는 장학수와 대원들.

7. 인천 인민군 방어지구 사령부, 사령관 실 안 - 계속

림계진 (30 대) 대좌와 조우하는 장학수와 대원들.

림계진: 연락은 받았습네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았습네다.
낙동강 전선은 어떻습네까?

장학수: 미제 놈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습네다. 앞으로 일주일 이 큰
고비일 것 같습네다.

림계진: 그 그 조무래기 같은 것들... 한방에 못 보내고 뭐하나
참!

장학수: 그러게 말입네다. 아시겠지만, 맥아더의 상륙작전에
대비해서 인천지역의 방어태세를 살피러 왔습네다.

림계진: 암요, 뭐든 조사할 게 있으면, 다 조사해야디요. 이젠
사적인 질문입네다만, 박남철 동무 생각은, 인천 군산
주문진 중, 맥아더가 어디를 택할 거라고 생각합네까?

장학수: (잠시 생각하다가) 인천이라고 생각합니다.
 림계진: 하!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동지가 여기 있었구만!
 박남철 동무, 여기 검열 보고서 쓸 때 점수를 콕콕 짚아서
 쓰시라요. 그래야, 평양에서 지원군을 콕콕 밀어주지
 않겠소?
 장학수: 그런 거 함부로 했다간 저는 총살입네다. 하하!
 류장춘: 부대배치 및 현황보고는 언제 받으시겠습니까?
 장학수: 지금.

8. 인천 인민군 방어지구 사령부, 창고 - 해질녘

임시 상황실로 꾸며진, 넓은 창고의 한구석에서 현황보고를 하고 있는 류장춘. 서류와 부대배치 상황판과 지도가 여기저기 놓여있다. 영사기가 돌아가고 있다. 인천지역 인민군 부대의 영상자료이다. 장학수와 대원들이 장부에 기록하고 있다.

류장춘: (인천과 서울 지역이 나온 지도를 가리키며) 현재 우리
 인민군대 배치 현황입니다. 인천에 226 독립육전연대,
 (해안가를 가리키며) 여기가 918 해안포연대 제 2
 포병대, (서울을 가리키며) 서울에는 78 독립연대,
 김포에 제 42 전차연대가 주둔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류장춘, 영사기를 끄라고 신호 보내며, 서둘러 정리하려는데:

장학수: 아직 안 끝났수다. 병력은 얼마나 되오?

잠시 장학수를 노려보는 류장춘, 안경을 고쳐쓰며, 서류를 덮는다. 류장춘, 머리에 입력된 정보들을 막힘 없이 쏟아낸다.

류장춘: 독립육전연대 2,048 명, 해안포연대 231 명. 제 42
 전차연대에 487 명...

영사기가 꺼지자, 류장춘이 장학수에게 묻는다.

류장춘: 현장 현장검열은 언제부터 하시겠습니까?
 장학수: 내일 공철시부터 합세다.
 류장춘: (씩 조개며) 성격 불같으십니다.
 장학수: 낙동강은 지금 피바답네다. 촉박하디요.

9. 인천 인민군 방어지구 사령부, 장학수 숙소 앞 - 해질녘

장학수 일행에게 숙소를 안내한 뒤, 밖으로 나오는 림계진, 류장춘, 하룡.

림계진: (류장춘에게) 재네 검열대 암호명이 뭔지 평양에
 연락해서 알아보라우. 인상착의도 맞는지 알아보고.
 류장춘: 검열대는 보안사항이라 그런 거 안 가르쳐 줄 겁네다.
 림계진: 비서실에 내 이름 대고 직접 물어보라우. 임선실이 찾아.

10. 인천 인민군 방어지구 사령부, 장학수 숙소 안 - 그날 밤

장학수와 대원들, 짐을 풀고, 씻고, 취침 준비를 한다. 장학수, 군용 침대에 누워 생각에 잠긴다.

11. 인천 시청 건물 - 이른 아침

이른 아침, 수 십개의 확성기가 달린 탑에서 울려 퍼지는 "인터나쇼날(Internationale)."

12. 인천 인민군 방어지구 사령부, 림계진 집무실/숙소 - 이른 아침

여전히 울려 퍼지는 “인터나쇼날.”

림계진, 거울을 보며 군복을 입고 있다. 군화를 닦는 림계진. 군화가 번쩍인다. 그때, 류장춘이 들어와 작은 소리로 말한다.

류장춘: “붉은 도스토옙스키”라고 합네다. 검열대 암호명이...

림계진, 고개를 끄덕인다.

13. 인천 시내 도로 - 이른 아침

확성기를 단 인민군 트럭이 인천시내를 누비며 “인터나쇼날”을 틀어주고 있다. 인천시내가 “인터나쇼날”로 뒤 덮힌다. 인천시민 모두 거리로 나와 “인터나쇼날”을 경진한 척 듣고 있다.

그때, 림계진과 장학수 일행을 실은 차량행렬이, 저쪽에서 “인터나쇼날”을 틀며 다가오는 확성기를 단 인민군트럭을 지나친다.

그때, 어느 건물에서 시민이 불쑥 튀어나와 전 속력으로 도망치고, 인민군 병사 두 명이 총을 뽑아 들고 그 뒤를 쫓아간다. 결국, 인민군 병사들에게 사살 당하고 마는 도망자. 이 광경을 일상인 듯 무심코 보는 림계진. 그들을 태운 지프가 코너를 돌아 사라진다.

14. 인천 시청 앞 광장 - 계속

시청 앞 광장에 삼파 곡괭이 등을 든 노동자들이 가득 모여있고, 의사와 간호사 등, 다양한 계층들이 서서, 곱상하게 생긴 **노동당 정치위원**의 사상교육을 듣고 있다. 군중들 중, 한채선의 모습도 보인다.

노동당 정치위원: (서울 말투로) 해방된 조국, 해방된 인천에서는 우리
노동자, 농민들이, 주인이 되는 세상입니다. 해방된
인민들은, 매일 세끼 쌀밥을 먹고, 사흘에 한번씩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회주의입니다! 이것이 곧
천국입니다!

군중: (환호하며) 앗호!

군중들과 함께 구호를 외치는 모습.

노동당 정치위원: (구호를 외치며) 끼니 걱정이 없는 세상!

군중: (따라 하며) 끼니 걱정이 없는 세상!

노동당 정치위원: (구호를 외치며) 주인과 종이 존재하지 않는 세상!

군중: (따라 하며) 주인과 종이 존재하지 않는 세상!

노동당 정치위원: (구호를 외치며) 진정으로 평등한 세상!

군중: (따라 하며) 진정으로 평등한 세상!

한채선, 애써 공포를 감추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때, 림계진과 장학수 일행을 실은 차량행렬이 광장을 지나간다.

15. 인천 외곽도로 - 계속

림계진과 장학수 일행을 실은 차량이 외곽도로를 달리고 있다. 옆에 인민군 부대가 보인다. 연병장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인민군들.

림계진: 박남철동무는 연안파요, 소련파요, 국내파요?

장학수: 소련파네다. 림계진 사령관 동지도 소련파디요?

림계진: 나야, 뻗속까지 소련파디요. 내 몸 속엔 소련피가
흐름네다.

거리에서 울려 퍼지는 “인터나쇼날”를 러시아어로 한 소절 따라 부르는 림계진, 활짝 웃으며 장학수에게 묻는다.

림계진: 다른 사람들은 다 맥아더가 군산으로 치고 들어올 것
같다는데, 박남철 동무는 왜 인천입니까?
장학수: 서울을 바로 치지, 저 아래 동네를 왜 침니까?
림계진: (기분이 좋아서) 계속 하시라요!
장학수: 인천을 쳐서 서울을 뚫어버리면 보급로가 동강나지
않습니까? 평양과 낙동강 전선을 이어주던 허리가 끊긴다
이겁니다. 그럼 아무리 돌대가리라도 어딜 치겠습니까?
림계진: 아니, 저 평양의 돌대가리들은 이걸 모른단 말입니다.
이런 상식을 모른다 이겁니다. (조심스럽게) “평양
돌대가리”라는 말은 보고서에 안 쓰실꺼디요?
장학수: 모르겠습니다. 하는 거 봐야디요.

장학수와 림계진 호탕하게 웃는다.

림계진: (활짝 웃으며, 기습적으로) 소속 암호명이 뭐요?
장학수: (얼굴이 굳으며) 그런 거 말하면 총살입니다.

잠시 후, 윗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내 뭔가를 적고 난 후, 찢어서 림계진에게 건넨다. 쪽지를 보는 림계진. 거기엔 러시아어로 두 단어가 적혀있다.

“Красный Достоевский” (붉은 도스토옙스키)

림계진, 미소 짓는다.

림계진: (러시아어로) “크라스네 도스토옙스키”

림계진, 종이를 반으로 접어 장학수에게 다시 건넨다.

림계진: 소련에서 공부했소?
장학수: 모스크바에서 3 년쯤 있었습시다.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합시다.
림계진: 그럼세다. 나중에 보드카 한잔씩 하면서.

16. 인민군 226 독립육전연대 - 오전

삼각대에 얹어지는 소련제 사진기. **사진병**이 민첩하게 노출과 거리를 렌즈에 맞추고 있다. 부둣가에서 장학수 일행과 림계진 일행이 사진을 찍기 위해 사진기를 보고 서있다.

사진병: 자! 한장 박겠습니다! 하나! 둘!

‘평!’ 하고 사진이 찍힌다.

장학수와 림계진, 바다를 향해 준비하듯 늘어서 있는 해안포들을 지나치며 걷고 있다. 장학수의 대원들이 각기 흩어져서 해안포 부대의 무기 배치 현황을 메모하며 점검하고 있다.

17. 인민군 226 독립육전연대 창고 - 낮

창고 안에는 각종 포탄들이 가지런히 정렬되어 있다.

조인국, 포탄들을 하나하나 메모하며 걸어가고, 인민군 병사들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 조인국, **어리버리**한 인민군 병사에게 명령조로 말한다.

조인국: 이게 뭐네?
어리버리: 네?

조인국: 포탄들을 정확히, 종류별로 분류해서, 일련번호를 매겨야 되지 않았어? 그래야 하루에 몇 개가 나가고 몇 개가 들어오는지 정확히 알 수 있잖네! 그래, 안그래?

어리버리: 그렇습네다.

조인국: 동무한테 임무를 하나 주잖어. 매일매일, 종류별로 하나하나 세서, 몇 개가 들어오고, 몇 개가 나가는지, 매일매일, 나한테 보고 하라우.

어리버리: (감격해서 경례하며) 알겠습니다!

18. 인천 인민군 방어지구 사령부, 장학수 숙소 - 밤

대원들 몇몇이 창 밖을 은밀히 살피고 있다. 장학수, 시계를 보고 있다. 21 시 55 분을 가리키고 있다. '째각째각' 초침이 움직인다.

19. 인천시내 시계방 - 계속

각종 시계들로 가득 찬 시계방. 루페 (LUPE; 돋보기 외눈 렌즈) 를 끼고 있는 최석중 (43 세), 시계를 고치다가 시간을 확인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를 지나 밀실로 들어간다. 밀실엔 대형 축음기가 놓여있다. 축음기의 스피커 뚜껑을 떼어내자 커다란 무전기가 나온다. 무전기 앞에 앉아 시계를 보는 최석중. 시계가 21 시 58 분을 가리키고 있다.

20. 인천 인민군 방어지구 사령부, 장학수 숙소 - 밤

시계를 보던 장학수, 강봉포를 보며 고개를 끄덕인다. 강봉포, 신속하게 배낭에서 무전기를 꺼낸다. 부피가 무척 크다. 무전기의 충전 크랭크 핸들을 빠르게 돌린 다음, 인민군 사찰 서류를 보며 무전을 치기 시작하는 강봉포. '돈도스 돈도스...'

장학수, 그 옆에서 담배를 깊게 한 모금 빨아들인다.

21. 인천시내 시계방, 밀실 - 계속

무전을 받는 최석중. 한 손으로 헤드폰을 귀에 대고, 무전내용을 받아 적고 있다. (그는 인천지역 "켈로 (KLO; Korea Liaison Office)" 지역대장이다.)

강봉포 무전: (자막) 경인지역 인민군 부대배치현황이다. 인민군 보병 4,138 명, 포병 987 명, 해병 463 명, 기타 수송병 의무병 취사병 326 명, 도합 5,914 명. 박격포 140 문. 곡사포 80 문. 탱크 12 대... 다음 임무를 알려달라.

최석중, '다음 임무를 알려달라' 까지 받아 적은 뒤, 회신을 보낸다.

최석중 무전: (자막) 접수완료. 잠시 대기.

최석중, 무전기의 채널 숫자 다이얼을 돌린다.

22. 부산 켈로 (KLO) 부대 - 계속

무전 내용을 영어로 타이핑 한 타자병이 마침표를 찍는 순간, 옆에 서서 보고 있던 클라크 대위, 종이를 직접 낚아채서 황급히 전화기로 향한다. 수화기를 잡는 클라크 대위.

클라크: (교환원에게; 영어로) [사령부의 에반스 중령 부탁드립니다.]

23. 동경 유엔 연합군 사령부, 사령관 실 - 계속

에반스 중령이 전화 통화 중이다.

에반스: (영어로) [...탱크가 몇 대? 12 대? 알았다, 클라크
대위. 다음 지시까지 대기하라.]

위스키 잔을 든 채, 에반스 옆에 앉아 전화통화를 듣고 있던 연합군 사령관 **더글라스 맥아더** (Gen. Douglas MacArthur, 70 세). 부관인 에반스가 수화기를 내려놓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입을 연다.

맥아더: [문제는 인천 앞바다야. 우리가 가는 길에 방해물이
있어서는 안돼. 수로와 수심, 기뢰, 월미도 진지 등 인천
앞바다에 관한 정보라면 무엇이든 다 보고하라고 해.
8 월 24 일 00 시까지.]

그때, 또 다른 부관 (**발렌타인**) 이 노크하고 들어와 말한다.

발렌타인: [참모총장 일행이 도착하실 시간입니다. 서두르셔야
합니다.]

일어서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다시 매는 맥아더.

24. 인천시내 시계방 지하 - 계속

최석중, 강봉포와 무전 (MORSE CODE) 으로 교신한다.

25. 인천 인민군 방어지구 사령부, 장학수 숙소 - 계속

강봉포, 최석중의 무전을 열심히 받아 적고 있다.

"- .. - ... --..." (모르스 코드 기호표)

그때, '똑똑' 노크소리... 긴장하는 장학수와 대원들... 대원들, 일제히 장학수를 주시한다.
강봉포, 재빨리 무전기를 감추려는데, 장학수, 손짓으로 계속 무전을 치라고 태연히 지시한다.

긴장을 애써 감추며 무전을 계속 치는 강봉포. 남기성이 문을 열어준다. 하룡과 부하 두 명이
안으로 들어온다.

하룡: 안 주무셨습니까?
남기성: 졸려 디지갔소.
하룡: (무전 치는 강봉포를 보며) 그럼 날래 주무시라요.
남기성: 일이 많아 디지갔소.

하룡, 뚝뚝 걸어와 강봉포 옆에 서서 무전기를 내려다 본다. 강봉포, 태연히 무전을 치고
있다. 강봉포, 땀이 한줄기 콧물을 타고 내려오고 있다.

하룡: 어데다 치는 겁니까?

강봉포, '싹' 하며 손으로 제지한 후, 계속 무전을 친다.

남기성: (잠시 후) 가보시라요. 바빠 디지갔소.
하룡: 날래들 주무시라요. 디지기 전에.

하룡, 불쾌한 내색을 감추지 않은 채 밖으로 나간다. 문이 닫히자, '휴' 하고 긴장감을 내려놓는
대원들. 장학수, 담배연기를 내뿜는다.

강봉포: (땀을 닦으며) 후달려 디지는 줄 알았습네다.
오대수: (남기성에게; 하룡을 흉내내며) 날래 주무시라요. 디지기
전에.
남기성: (사람 좋게 굶실거리며) 그럼 자빠져 주무시겠습네다.
디지기 전에.
천달중: (잠시 후) 뭇 좀 먹읍세다. 디지기 전에.

송상수: (싸늘하게) 입 닥치라우. 디지기 전에.
조인국: (개 품 잡으며) 쫄병이라도 할말은 합세다. 디지기 전에.
양관동: (개 품 잡고; 장학수에게) 한 모금만 뺏세다, 디지기 전에.
장학수: 한 모금 빠시랴요. 디지기 전에.

장학수, 양관동에게 거의 다 피운 콩초를 건넨다. 그때, 콩초를 가로채는 남기성, 한 모금 맛있게 빨고, 양관동에게 건네려는데, 가로채는 조인국. 이렇게 모두가 하나씩 양관동을 따돌리고 한 모금씩 맛있게 빨며 콩초를 돌린다: 송상수, 천달중, 강봉포... 마지막으로 오대수가 맛있게 한 모금을 빠는데, 콩초의 불이 필터에 닿아 꺼진다. 담배를 비벼 끄는 오대수. 양관동, 열 받지만 가만히 있다. 늘 그래왔듯이. 그들 모두, 킬킬거린다.

26. 동경 외곽 유엔 공군기지 - 밤

비행기가 착륙한다.

자막: 1950 년 8 월 23 일

군복을 입은 미국 공군참모총장 (반데버그) 과 육군참모총장 (콜린스; 합참의장), 해군참모총장 (서먼) 이 비행기에서 내린다. 그들을 맞이 하는 맥아더, 여유로워 보인다.

27. 동경 외곽 도로 - 밤

본부로 돌아오는 차 안:

공군참모총장과 육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이 뒷좌석에 끼어 앉아있다. 조수석에 앉아있는 맥아더가 활짝 웃으며 말한다.

맥아더: [위싱턴이 아주 조용하겠습니다. 십 수개의 찬란한 별들이 이 노회한 맥아더를 죽이겠다고 한꺼번에 날아왔으니.]
공군참모총장: [3 대 1 로 한번 붙어봅시다. 자근자근 뺏아 줄 테니.]
맥아더: [그럼 이렇게 합시다. 자근자근 뺏힌 채로 3 회를 넘기면 내가 이기는 걸로. 하하하.]

같이 웃는 그들.

28. 동경 유엔 연합군 사령관실 - 밤

맥아더와 공군참모총장, 육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이 자료를 수북이 펼쳐놓고 3 대 1 로 격론을 벌이고 있다.

해군참모총장: [난 반대!]
육군참모총장: [나도 반대!]
공군참모총장: [나도 반대!]
맥아더: [반대의 이유가 뭐요? 전쟁의 승리가 싫어서? 아니면 (자신을 가리키며) 이 맥아더가 싫어서? (지도를 가리키며) 전략적, 정치적, 심리적 이유 때문에 서울을 신속히 탈환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천이어야만 합니다.]
해군참모총장: (인천 앞바다의 상황판을 지시봉으로 가리키며) [이 인천 앞바다는 썩먹을 수 있는 데가 여기뿐입니다. 나머진 모래와 빨밭으로 딱 차서 배가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럼, 이 단일 수로로 상륙정을 띄워, 연합군 수 만명을 실어 나르겠다는 애긴데, 이게 말이 됩니까?]

맥아더: [말이 안되죠. 그래서 세 개의 루트를 개발 중입니다.
(지시봉으로 앞바다를 가리키며) 그린, 레드, 블루!]

공군참모총장: (아랑곳없이) [한국전쟁이 터지자마자, 장군께서 이런 말을 하셨다죠? ‘한국전쟁은 전쟁의 신이 늙은 전사에게 준 마지막 선물’이라고.²]

해군참모총장: [어떤 기자가 이렇게 떠들더군요. ‘맥아더장군께서 한국전쟁의 승리를 전리품으로 삼아, 다음 대선에서 트루먼을 물리치려 한다.’]

육군참모총장: [어떤 기자는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웨스트포인트 출신의 최고 엘리트 집안의 맥아더가, 2 년제 대졸 출신인 트루먼 대통령을 앞잡아보고 있다.’]

해군참모총장: [인천 앞에 놓인 난제들은 어떻게 할겁니까? 간만의 차? 세계최곱니다! 단일수로? 큰 배는 못 들어갑니다! 뽕밭? 탱크도 못 움직입니다! 해안 벽? 너무 높아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합니다!]

맥아더: [사다리는 이미 제작해서 준비를 해놨습니다.]

맥아더, 파이프를 입에 문다.

맥아더: [6.25 전쟁이 터지고, 이틀 후인 6 월 27 일, 난 전황을 살피기 위해 극비리에 한국에 갔었습니다. 그때 산속에서 참 기이한 장면을 봤습니다. 다른 한국군은 다 후퇴했는데, 한 소년병이 참호 속에 혼자 있었습니다. 총도 없이, 그냥 맨몸으로. 내가 물었습니다. “왜 아직 후퇴하지 않았나?” “후퇴하라는 상관의 명령이 없었습니다.” 그 소년병이 참으로 기특하더군요. “자네 소원이 뭐가?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주고 싶네.” “충분한 총과 실탄을 주십시오.” 난 그때 결심했습니다. 이 소년병의 나라를 무슨 일이 있더라도 지켜주겠다고...]

맥아더, 세 사람을 하나하나 둘러본다.

맥아더: [잠시 감상적이었습니다만, 나는 여기 계신 세분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자유진영의 가치는 무엇일까?’]

맥아더, 파이프 담배를 길게 한 모금 빨아들인다.

맥아더: [우린 1 차대전은 왜 싸웠고, 2 차대전은 또 왜 싸웠습니까? 자유진영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지금 공산주의가 전세계로 불게 번지고 있습니다. 바이러스처럼. 공산주의는 국경을 떠나, 인종을 떠나, 혁명을 부르짖으며, 젊은이들의 피와 정신을 다 갉아먹고 있습니다. 우린 싸워야 합니다. 이겨야 합니다. 그게 우리 자유진영의 가치입니다.]

² "...Mars' last gift to an old warrior."

맥아더의 말을 듣고 숙연해지는 세 사람.

29. 동경 외곽 유엔 공군기지 - 이른 아침

붉은 해가 동쪽 바다에서 떠오르고 있다. 전용기 앞에서 맥아더가 공군참모총장, 육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고 있다. 악수가 끝난 후, 병쩨 표정으로 전용기에 올라타는 세 사람, 모두 석연치 않은 표정이다. 선글라스를 낀 맥아더,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그들의 등뒤에 거수경례를 한다.

30. 인천 항구 앞 바다 - 아침

인민군 경비정이 바다 위에 떠있다. 경비정에 타고 있는 림계진과 장학수와 대원들. 그들이 관찰하는 가운데, 수심 측정과 기뢰 확인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수심 측정: 수심을 잴 수 있게, 일정한 간격으로 매듭이 저진 밧줄에 커다란 닻이 묶여있다. 닻이 바다로 던져지면, 물레에 감겨있던 밧줄이 풀려나간다.

기뢰 확인: 인민 사병, 조심조심 기뢰를 다루는 모습이 보인다. 투하 직전, 기뢰를 조심스럽게 활성화시킨 다음, 바다 속으로 투하한다. 서서히 바닷속으로 가라앉는 기뢰...

바닷속: 추가 매달린 둥근 기뢰들이 바다 곳곳에 떨어지고 있다. 일정한 수심에 줄줄이 설치되기 시작하는 기뢰들. 많은 수량의 기뢰들이 바닷속에 대롱대롱 잠겨있다...

계속 관찰하는 장학수와 대원들...

31. 경비정 갑판 - 계속

송상수가 갑판에서 또 다른 어리버리에게 묻는다.

송상수: 어데까지 들어갔수까?
어리버리 2: (밧줄 눈금을 보며) 22 입네다.
송상수: 그럼 날짜 별, 시간 별로, 수심을 재서 여기다 이렇게 적으라 이거야. 알간?
어리버리 2: (장부에 적으며) 그럼 여기다 22 라고 적겠습네다.
송상수: 그렇지! 그렇게 적어서 매일매일 보고하라우.
어리버리 2: 알갔습네다.

한편, 저쪽에선 양관동과 오대수가 기뢰도표에다가 기입을 하고 있다.

장학수: 여기엔 기뢰가 몇 개나 설치되었지?
양관동: 이미 설치된 건만 120 개 이상이고, 오늘도 기뢰 부설 중입네다.
장학수: 꽤나 촘촘하구만?
양관동: 다음 주에도 추가 부설이 있다고 보고 받았습네다.
림계진: (장학수 옆으로 오며) 어떻습네까? 맥아더가 인천으로 오려면 고생 깨나 하갔디요?
장학수: 그렇디요. 미제 놈들이 들어오려면 이 단일 수로를 통과해야 하는데 여기에 기뢰가 무진장 설치되어있으니, 앞 배가 지나가다가 기뢰와 '팡!' 하고 부딪혀 멈춰서면, 뒤따라오던 배들도 줄줄이 '주욱!' 멈춰 서서, 오도가도 못하고!
림계진: 하하하. 모조리 수장시켜버리는 기디요! 자, 갑세다.

경비정을 타고 가는 림계진과 장학수 일행, 월미도에 당도한다.

32. 월미도 - 낮

갈매기가 조개를 쪼아먹고 있다. 바다의 평온한 풍경. 해안 주변에 한창 공사중인 해안포 부대 방어 진지.

림계진이 기분 좋게 떠 별인다.

림계진: 소감이 어땠습니까?
장학수: 웅장합네다.
림계진: 내 희망이라면 이 월미도가 세계전쟁사의 한 획을 긋는
철벽요새가 되었으면 좋겠습네다. 하하하!
장학수: 그리 될 것 같습네다.
림계진: 그렇소? 검열대장한테 이런 소리를 들으니, 기분이 참
좋수다요. 하하하!

림계진, 장학수 일행에게 월미도 방어진지를 안내한다.

33. 인천 시립 병원 - 오후

나이 지긋한 환자가 의식불명인 채로 병원침대에 누워있다. 간호사 복장의 한채선, 환자의 링거액을 교체하고 있다. 림계진과 장학수, 침대 앞 의자에 나란히 앉아있다. 장학수, 한채선한테서 눈을 떼지 못한다. 림계진, 담배를 싹싹 피워댄다. 경비가 삼엄하다.

림계진: (한채선에게) 이 양반 살아날 수 있겠수?
한채선: 저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의사 선생님께 여쭙봐
드릴까요?
림계진: 그래도 이 감이라는 게 있디않소?
한채선: 제 능력이상의 질문이십니다. 하지만 간호원은 항상
환자가 살아남길 바라죠.

림계진, 환자의 귀에 대고 작은 소리로 말한다.

림계진: 사령관 동지, 통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네다. 통일이 되면
사모님 모시고 올 테니 고저 죽진마시라요.

이때, 눈길이 마주치는 장학수와 한채선.

34. 인천 시립 병원, 수혈실 - 계속

창 밖으로 숲이 보인다. 경비가 삼엄한 실내와 실외. 한채선, 림계진의 손목에 주사를 꽂으면, 수혈이 시작된다. 한채선을 주시하는 장학수. 그리고, 그런 장학수의 모습을 바라보는 림계진.

림계진: 박남철 동무, 난 군인도 아니라요. 난 일주일애 한번씩
수혈을 못 받으면 죽습네다. 내가 낙동강 전선에 못 가는
이유가 거기 있디요. 현대, 내 몸이 이렇다 보니, 또한
죽음이 두렵디 않소. 그러니까네, 어찌보면 나야 말로
진정한 군인이지! 안 그렇소, 한채선 동무?
한채선: (빙긋이 미소 지으며) 예.
림계진: 시간이 다소 걸릴테니, 둘이 산책 좀 하고 오시라요.
서로 쳐다만 보지말고.

얼굴이 빨개지는 장학수와 한채선.

35. 인천 시립 병원, 산책로 - 계속

말없이 산책하는 장학수와 한채선.

장학수: 또 뵈게 되네요.

한채선: (처음이라는 듯) 예?

장학수: 기냥... 동무가 거리를 가고 있었지요. 낯은 서화집을
옆구리에 끼고. 전쟁 중엔 보기 힘든 광경이었지요.
다시는 못 뵈 줄 알았는데.

한채선: 서화집이요?

장학수: 해월의 '진경산수도'였습네다.

한채선: 아! 그걸 들고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서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가 봐요?

장학수: (미소 지으며) 고향이 여기 인천이십니까?

한채선: 예.

장학수: (둘러보며) 병원이 지은 지 오래 됐나 봐요?

한채선: 예, 인천에서는 제일 오래된 건물이지요.

장학수: 저는 어릴 적부터 병원을 싫어 했지요. 피 냄새가
나서리.

한채선: 그런데 어떻게 군인이 됐어요?

장학수: 그러게 말입네다. 시대를 잘 못 만났지요.

그 말에 서로 마주보며 미소 짓는다.

36. 인천 시청 앞 광장, 공회당 앞 - 낮

광장 한복판에 인민재판이 열리고, 시민들이 많이 모여있다. 단상 가운데에 **교장선생** (57 세) 이
무릎을 꿇고 있고, 그 옆에서 **어린 소년** (12 세) 이 교장선생에게 샅대질하며 큰소리로 성토했다.
단상 뒤편에 앉아있는 림계진과 장학수.

어린 소년: 여기 교장선생은 일제 때 고등경찰을 지낸
악질분자입니다! 해방이 되자마자 미제 놈들의 앞잡이가
되어, 우리 인민들의 피를 빨아먹었고! 조선해방전쟁이
터지자, 지금은 공산당원 행세를 하다가, 내가 고발해서
여기 이렇게 붙잡혀 왔습니다! 남경래, 이 사람은 도대체
뭘니까! 이자를 왜 살려둬야 됩니까? 난 이 반동분자를
고발합니다! 이자는 인민의 적입니다! (오른손을 들어
외치며) 오욕의 이 땅을 반동의 피로 붉게 도색합시다!

시민들: 옹소! 옹소!

시민들의 함성과 분노가 극에 달하자, 림계진이 앞으로 나와 교장선생 옆에 선다.

림계진: 우리 공화국 군대는 부르주아와 불온한 사상의
'변절자'들을 모조리 경멸합네다. 반동분자는 살려둘 수
없습네다. 따라서, 지 목숨을 건지려고 좇대 없이
왔다갔다하며 인민을 팔아먹은 이 회색분자를 즉결처형
하갸습네다.

림계진, 권총을 뽑아, 교장선생의 뒤통수를 겨누 후, 망설임 없이 즉각 사살한다.

총탄의 반동으로 앞으로 꽂 고꾸라지는 교장선생. 피가 튀어, 림계진의 손에 묻는다. 환호하며
박수치는 어린 소년, 눈가에 광기가 가득하다. 시민들 모두 박수 친다. 림계진, 손수건을 꺼내
손에 묻은 피를 천천히 닦는다. 그런 림계진을 보는 장학수.

37. 러시아 바 – 해질녘

스탈린과 레닌의 포스터가 붙어있는 러시아 바. 일종의 장교 클럽 분위기다. 보드카를 들이키는 인민군 장교들, 아코디언 반주에 맞춰 힘차고 격렬하게 러시아 군무를 춘다. 림계진과 장학수, 긴배하며 보드카를 마시고 있다. 주변엔 장학수의 대원들이 인민군 장교들과 술을 마시고 있다.

림계진: (장학수에게) 박남철 동무, 노래 한 곡 부르시라요.

장학수: 사양하겠습니다.

림계진: ‘인터나쇼날’ 한번 부르시라요.

이때, ‘인터나쇼날’이라는 말에 긴장하는 대원들. 잠시 후, 장학수가 답한다.

장학수: 저는 노래할 줄 모릅네다.

림계진: 소련 유학파가 ‘인터나쇼날’을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러시아 말로 째악 뽐아 보시라요.

장학수: 싫습네다.

순간, 싸아 해지는 분위기. 장학수의 대원들, 둘을 번갈아 주시한다. 림계진, 떨떠름하게 장학수를 바라보다, 웅졸하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이내 미소를 짓는다.

CUT TO:

림계진과 장학수, 보드카를 가득 따라 마시고 나서, 잔을 탁자 위에 ‘뽕!’ 내려놓는다.

림계진: 전쟁은 언제 끝날 것 같소?

장학수: 하루? 이틀? 사흘?

림계진: 하하! 그렇디요? 우리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완수를 위하여!

서로 잔을 부딪힌 뒤, 단숨에 마신다.

림계진: 내가 모스크바 공산대학에 다닐 때 미치코프 교수는 우리들의 우상이었소.

장학수: 나의 우상이기도 하였디요.

림계진: 그 미치코프 교수가... 우리의 우상 미치코프 교수가... 그의 아름다운 여동생, 소냐를 권총으로 쏜 죽였을 때 우리 유학생들은 다같이 환호했디요. 그 사건을 아시오?

장학수: 압네다. 소냐가 기독교를 믿는다 해서, 미치코프 교수가 여동생의 머리에 권총을 세 방을 쏘서 죽였디요.

림계진: 어떻게 생각하시요? 박남철 동무는? 동무의 여동생이 기독교를 믿는다면 어찌하겠소?

장학수: (잠시 생각하다가) 말려야디요.

림계진: 말려도 말을 안 들으면, 사살할 수 있겠소?

장학수: 없습네다.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진다.

림계진: 신이 있다고 믿으시오?

장학수: 여동생이 신이 있다고 믿으면 그건 여동생의 몫이디요.

림계진: 신이 있소, 없소?

장학수: 모르겠습네다.

림계진: 모르겠다? 동무는 왜 그런 위험한 발언을 나에게 하는
거요? 나에게 뭘 바라는데? 우정? 관용? 반동의 싹을
같이 지피자는 거요? 뭘 바라는데!

장학수: 없소. 아무것도.

림계진, 잠시 장학수를 광기 어린 눈매로 노려보다가, 자기 잔에 보드카를 가득 따라, 단숨에 마신다. 장학수, 별로 개의치 않는 표정이다.

38. 동경 유엔 연합군 사령부 - 낮

맥아더가 인천이 찍힌 항공정찰 사진을 보고 있다. 그 옆에선 에반스 소령이 정찰 사진들을 맥아더에게 설명한다. 창가 쪽에 셀룰로이드 사진을 비추어보는 맥아더.

에반스: (손으로 가리키며) [이곳이 226 독립육전연대입니다.
여긴 918 해안포연대입니다.]

맥아더: [이건 뭐지?]

맥아더의 손가락이 어딘가를 짚으면, 거대한 꽃밭의 일부분이 다소 이질적으로 보인다.

에반스: [어디요?]

맥아더가 서둘러 일어나, 인천의 모형관 쪽으로 가서 지시봉으로 가리키며 말한다.

맥아더: [‘꽃밭.’ 여기가 미스터리야. 너무 한가로워. 틀림없이
이 꽃밭에 뭔가가 감춰져 있어. 현재까지 X-RAY 측에서
보내온 정보를 분석해봐도... (서류들을 뒤져보며) 아직
918 해안포연대는 박격포들과 76 미리 포 몇 문 외에는
주력화기의 모습이 전혀 노출되지 않고 있어.]

에반스: [그렇습니다.]

맥아더: [진짜는 감춰놓고 있다? 은폐된 그 무엇인가가 있다?]

에반스: [아마도...]

맥아더: [‘아마도’를 ‘절대적으로’로 바꿔.³]

에반스: Yes, sir.

39. 918 해안포연대 - 낮

박격포 20 문이 차례로 포를 쏘아댄다. “펑펑펑...” 장학수와 대원들, 포의 성능과 비거리를 망원경으로 보며, 기록한다.

조인국: (망원경을 보며) 초탄 불발! 거리 부족 다섯 발! 명중
일곱 발!

한편, 장학수는 망원경으로 완만한 언덕을 보고 있다. 그곳에는 넓은 꽃밭이 있고, 언덕 위에는 커다란 창고 세 개가 있다. 꽃밭 중간에 잘 위장된 커다란 위장 망이 보인다. 무엇인지 잘 알아채기 어렵다. 꽃밭 주변에는 중무장한 경계병들이 늘어서있다. 경계가 삼엄하다.

장학수: (류장춘에게) 저기 저쪽은 뭐요?

류장춘: 꽃밭입네다.

장학수: 같이 가봅세다.

류장춘: 일급 비밀입네다.

장학수: 그런 게 어딴소? 비밀까지도 검열에 포함된 거 아니요?

³ Turn ‘Maybe’ into ‘Absolutely.’

류장춘: 저기 가려면 (갑자기 차렷자세를 하며)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의 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장학수: (마찬가지로 부동자세를 취하며) 내가 바로 최고사령관
동지의 명을 받은 몸이요.

류장춘: 죄송합니다. 직접 명령서를 받아오시지요.

류장춘, 앞장서 떠나 버린다. 장학수, 어쩔 수 없이 따라 나하지만, 눈길은 자꾸 '꽃밭'을 향한다.

40. 인민군 918 해안포연대 안 탄약 창고 - 낮

포탄 상자들이, 도서관에 배열된 책장처럼, 4 열중대로 촘촘히 높이 쌓여있다. 중간 통로에서 포탄 상자를 열어 개수를 세던 천달중이 주위를 살핀 후, 오대수에게 뭔가를 은밀히 건넨다.

천달중: 좀 드시지요.

오대수: 뭔데?

천달중: 인절미입니다.

오대수: 어디서 샀네?

천달중: 운 좋게 구했습니다. 어서 드셔보시지요, 도련님.

오대수: 미쳤네? 도련님이라고 부르지 말라니까!

천달중: 도련님도 참! 듣긴 누가 듣는다고 그럼네까?

헌데, 마침 림계진이 옆 통로를 지나가고 있다. 림계진, 계속 가다가 통로 끝을 돌아 오대수와 천달중을 본다.

림계진: 이 보라우!

오대수와 천달중, 림계진을 본다.

41. 인민군 918 해안포연대, 연병장 - 낮

장학수의 수첩. 수첩에 뭔가를 적어가는데, 암호라서 해독하기 어렵다. 사방이 뚫려있는 간이텐트. 장학수, 의자에 앉아, 계속 수첩에 뭔가를 적어간다. 그때:

림계진: (장학수에게) 이동무가 이동무한테 "도련님"이라고 부르던데, 알고 있었소? (천달중에게) 그럼, 동무가 쌍놈이고, (오대수에게) 동무가 양반이요?

오대수: 지금 이 땅에, 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양반쌍놈이 어딴습니까? 양반쌍놈의 계급타파를 위해 우리가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림계진: (천달중에게) 들었다? 다시는 내 앞에서 그런 말 쓰지 말라우. (장학수에게) 박남철 동무께서 부하들 사상교육 좀 제대로 시켜야 되겠습니까.

림계진, 조용히 저쪽으로 걸어간다. 화가 머리 끝까지 치솟은 장학수, 충을 뿜아 천달중의 머리에 겨눈다.

장학수: 다시 한번 반동분자의 말을 입밖엔 내뱉으면, 내가 널 즉결처형하겠어!

천달중: 며-명심하겠습니다.

장학수, 그대로 충을 계속 겨누다가, 충을 거둔다. 림계진, 끝까지 보고 있다.

42. 인천 인민군 방어지구 사령부, 장학수 숙소 - 밤

장학수, 책상 앞에 앉아 있다. 맞은 편엔 오대수와 천달중이 서있다.

장학수: 오대수, 말해봐.

오대수, 말을 못한다.

장학수: 천달중, 니가 말해봐.

천달중: 전 군인입네다.

장학수: 군인인줄 몰라서 물어? 둘이 무슨 관계야!

천달중: 아무 관계 아닙네다! 기냥 헛 나온 말입네다. 더 이상 묻지 마시라요!

그때, 양판동과 송상수가 문을 열고 쭈뼛쭈뼛 들어온다.

양판동: (장학수에게) 저어... 조인국이가 안 보입네다.

장학수: (놀라며) 언제부터?

양판동: 지 혼자 제 226 육전연대에 알아볼 것이 있다고 아침에 나갔더랬습네다. 벌써 오고도 남을 시간인데...

송상수: 저희 둘이서 지금 육전연대에 가볼까요?

장학수: (잠시 생각하다) 좀 더 기다려보지.

43. 인천 차이나타운 - 이른 새벽

달리는 인민군 차량들. 새벽의 안개 속을 가르며, 인민군 차량들이 속속 차이나타운의 골목 앞에 다가와 멈춘다. 차에서 내리는 장학수와 림계진 일행. 현장을 지키고 있던 인민군이 림계진을 안내하여 골목 안으로 들어간다. 구경 나온 중국인들의 모습이 보인다.

현장 앞에 서면...

조인국, 심하게 얻어맞고 얼굴이 통통 부은 채로 골목 벽에 기댄 채 죽어있다. 장학수와 림계진이 시체를 살펴본다.

림계진: (류장춘에게) 누가? 왜? (중국인들을 바라보며) 왜 하필 이 동네에서? 이유가 알고 싶구만. 무조건 생포해 오라우.

림계진, 차를 타고 떠난다. 묵묵히 조인국의 시체를 바라보는 장학수와 대원들.

양판동: (상처를 살펴보면서) 이거 고문당한 건데요.

장학수: 고문?

양판동: (손목의 결박흔을 살펴보며) 이거 묶어놓고 팬갑네다. (아직 굳지 않은 피를 손가락으로 비벼보며) 두 시간도 채 안됐습네다.

미궁에 빠지는 장학수.

44. 동경 유엔 연합군, 맥아더 집무실 - 낮

트루먼과 전화로 통화중인 맥아더. 집무 책상에 걸터앉아 불량한 자세로 통화하고 있다.

맥아더: [안됩니다, 대통령 각하. 상륙작전은 늦출 수 없습니다. 만약 상륙작전을 늦춘다면, 아마도 2 달후, 월미도는 난공불락의 요새가 될 것이고, 그 후엔 아무것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각하의 뜻을 모르는 건 아쉽니다만,

인천도 포기 할 수 없습니다. 크리스마스 전에 이 전쟁을
끝내겠습니다... 예, 각하.]

통화를 마치고, 수화기를 들고 있는 맥아더. 이때, 기다렸다는 듯이 에반스가 입을 연다.

에반스: [X-RAY 대원 중 한 명이, 오늘 새벽, 시체로
발견됐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맥아더, 에반스의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몰라, 에반스를 물끄러미 쳐다본다.

에반스: [대원들 전체가 위험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잠시 고민하는 눈빛의 맥아더. 수화기를 꺾 내려놓으며 말한다.

맥아더: [실종되거나, 시체로 돌아온 요원들이 한 둘이야? 별도
지시가 있기 전까지, 흔들림 없이 맡은 임무를 예정대로
실행하라. 이게 내 지시야.]

45. 시계 방 - 밤

장학수가 시계방에 들어선다. 비어있는 시계방. 잠시 후, 최석중이 안에서 나온다.

최석중: 시계 고치러 오셨습니까?
장학수: 네. 근데 시계를 안 가져 왔습네다.
최석중: (잠시 멈칫하며) 우산은요?
장학수: (잠시 응시하다가) 뱃속에 있습네다.
최석중: 그럼?
장학수: 'X-RAY'를 찍고 싶습네다.

장학수, 손목에 차고 있던 시계를 풀어 최석중에게 건넨다. 최석중, 자기 책상 앞에 앉으며,
장학수에게 의자를 권한다. 장학수, 최석중 옆에 앉는다. 최석중, 루페를 한쪽 눈에 끼고, 공구를
들고, 시계를 고치며 조용히 입을 연다.

최석중: 기르는 토끼가 여덟 마리입니까?
장학수: 장학수입네다.

최석중, 알고 있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인다.

장학수: 혹시 최석중 대장 말고, 우리의 존재를 아는 요원이 또
있습니까?
최석중: 없습네다.
장학수: 그럼, 누가 왜?
최석중: 범인이 누군지 나도 알아보고 있습네다. 립계진일
가능성도 있습네다. 밤새 고문을 하다가 죽어버렸을지도
모릅네다. 립계진은 아주 교활하고 잔인한 놈입네다.
인민군들 사이에서도 악명이 높디요. 앞으로도 의심이
해소될 때까지, 끝까지 쫓서댈겁네다. 조심하시라요.

최석중, 장학수에게 시계를 건네준다.

최석중: 일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네다. 오늘도 본부에서
연락이 왔습네다. 빨리 '꽃밭'을 보고 싶다고.
장학수: 알았습네다.

장학수, 손목시계를 차며 시계방을 나와 어둠 속으로 사라진다.

46. 인천 시청 앞 광장 - 해질녘

시청 광장이 석양의 빛을 받아 붉게 물들고 있다. 주위 경관을 감상하며, 광장을 느릿느릿 걸어가고 있는 장학수와 림계진. 그들 뒤로 류장춘과 하룡과 인민군 병사들이 따라오고 있다.

림계진: 이 인천에 낙조가 떨어질 때면 '상트페테르부르크' 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장학수: 레닌그라드 말입니까?

림계진: (웃으며; 꺾속말로) '레닌그라드'라는 이름은 낭만이 없디않소? 도시는 그냥 도시로 놔둬야지, '레닌그라드'가 뭐요?

림계진, 떠보는 듯 미소 띤 표정으로 장학수를 바라본다. 장학수, 말이 없다.

림계진: 난 전쟁이 끝나도 여기서 살거우다. 여기다 상트페테르부르크 못지않은 성을 질것이요. 기대하시요, 박남철 동무. 하하하!

그때, 도리우찌(헌팅캡) 모자를 쓴 **청년**이 어디선가 느닷없이 나타난다. 순간, 하룡이 청년을 발견하고 총을 뽑으려는데, 청년이 수류탄을 림계진을 향해 던진다. 그 순간, 먼저 본 장학수가, 미처보지 못한 림계진을 무의식적으로 몸을 던져 감싸며 옆으로 쓰러진다. 순간, '팡'하고 터지는 수류탄.

도리우찌 청년: 이 빨갱이 새끼들아! 다 죽어!

도리우찌 청년, 권총을 뽑아 들려는 찰라, 어느새 하룡이 도리우찌 청년을 향해 총을 발사한다. 병사들도 따발총을 난사한다. 벌집이 되어 즉사하는 도리우찌 청년.

이때, 곳곳에 숨어있던 5명의 **청년게릴라**들이 총과 수류탄으로 공격을 감행한다. 하룡과 인민군 병사들 청년게릴라들에게 기관총을 난사한다. 숫적으로 밀리며, 공격을 하다 말고 도망치는 게릴라들. 하룡의 지휘하에 수색과 소탕작전이 신속히 펼쳐진다.

장학수도 벌떡 일어나 반사적으로 소탕작전에 합류한다. 먼지를 털고 천천히 일어나는 림계진, 용감한 장학수의 뒷모습을 바라본다.

47. 인천 시청 앞 광장, 골목들 - 계속

인민군들에게 순식간에 제압되는 3명의 청년게릴라들. 노련하고 침착한 인민군들에게 일방적으로 사냥을 당하고 만다. 장학수, 하룡 일행과 시민들이 보는 가운데, 청년게릴라 한 명을 사살한다. 장학수, 그리고 곧장 민가로 뛰어든 또 다른 청년게릴라 한 명을 뒤쫓는다.

1 대 1 추격 씬. 장학수, 민가를 뒤지다가, 마루 밑에 숨은 청년게릴라 5와 눈이 마주친다. 하지만, 장학수, 보지 못한 양, 조용히 총구를 옆으로 돌리며, 장독대쪽으로 이동한다.

청년게릴라 5, 안도의 한숨을 쉰다.

48. 인천 시청 앞 광장 - 계속

장학수가 림계진 앞으로 다가 온다.

림계진: (장학수에게) 빛을 크게 졌수다. 나중에 갚을 기회가 오갔디요.

장학수: 일없습네다, 동무.

이때, 사살한 시체들을 질질 끌고 와, 땅바닥에 늘어놓는 하룡과 인민군들.

하룡: 반동 분자 5명. 전원 소탕했습니다.

시신들 가운데 마루밑에 숨어있던 청년게릴라 5도 포함되어있다. 시신을 흘깃 쳐다보는 장학수.

림계진: 너무 무모하지 않습니까? 아까운 청춘을 쓸데없는 이상에
바치고 말이다.

장학수: (시신을 보며) '이상은 평화로우나, 역사는 잔인하다.'

장학수, 시 한 구절 읊듯이, 툭 내뱉고는 걸음을 옮긴다.

49. 해안가 - 해질녘

림계진과 장학수, 말을 타고 해안가를 질주하고 있다. 서로 친구가 된 양, 다정해 보이는 두 사람. 장학수의 눈에 창고 세 개가 있는 '꽃밭' 언덕이 멀리 보인다. 경비가 여전히 삼엄하다.

림계진: 박남철 동무, 우리가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려면, 우리
인천이 뭘 보장해야 할 것 같소?

장학수: 월미도 요새는 완공되려면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이고,
인천은 단일 수로라는 점에서 방어하기가 좋긴 합네다만,
너무 기뢰만 믿어선 안됩니다. 미제 놈들 소해 능력이면
불과 며칠만에 수로는 뚫려버립니다.

림계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그럴리가?

장학수: 허투루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기뢰제거 작전에
일본놈들까지도 참가하고 있다는 첩보가 있습니다.
소련정보국에 한번 확인해 보시라요.

림계진, 장학수를 묘하게 바라본다. 붉은 태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며 바닷속에 반쯤 걸쳐있다.
그 붉은 태양 속에 나란히 서있는 두 사람.

50. 인천 인민군 방어지구 사령부, 장학수 숙소 앞 - 새벽

림계진의 지프가 장학수의 숙소 앞에 멈춘다. 류장춘, 숙소 안으로 들어간다. 정복을 말쑥하게
차려 입은 림계진, 담배를 피운다. 잠시 후, 류장춘과 장학수가 숙소에서 나온다.

림계진: 타시라요.

장학수: (놀라움을 감추며) 어디 가는 겁니까?

림계진: 같이 갈 데가 있습니다.

얼떨결에 지프에 오르는 장학수. 대원들이 창가에 서서 보고 있다. 출발하는 림계진의 지프. 지프
뒤에 장갑차와 무장한 인민군 병사들을 실은 수송트럭이 뒤따르고 있다.

51. 평양 광장 - 낮

제복을 입은 여군 헌병이 이 사거리에서 교통 정리를 하고 있다. 말 타고 가는 제복 입은
기마병들도 보인다. 활기가 넘치는 평양의 풍경.

10 열 중대로 끝도 없이 늘어서 행진하는 인민군대의 행렬. 소총을 받쳐들고, 군화발을 열과 발을
맞춰 기계처럼 행진한다. 광장에 울려 퍼지는 군화발 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진다.

병사들의 행렬 뒤로 트럭과 지프의 행렬이 따라오고, 이어서 탱크 대열이 위협적으로 등장한다.
많은 시민들이 박수치고 환호한다. '그르릉 그르릉' 소리를 내며 수 십대의 탱크가 사거리를
통과한다.

이 무시무시한 광경들을 목도하는 장학수.

장학수: 갑자기 평양엔 왜?...

림계진: 같이 만나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탱크 행렬이 모두 지나쳐서 사라지자, 멈춰서 있던 림계진의 지프가 앞으로 전진해 광장을
가로질러 간다.

52. 평양 인민군 최고사령관 집무실 건물 - 낮

물샬 틈 없는 경계를 서고 있는 인민군 헌병들. 림계진과 장학수, 2층 계단을 올라가, 긴 복도를 따라 마지막 방에 사무실 문 앞에 멈춘다. 노크를 하고 들어가는 림계진과 장학수.

53. 평양 인민군 최고사령관 비서실 - 계속

정복과 근무복을 입은 비서들이 여럿 근무하고 있다가, 림계진을 보자, 벌떡 일어나서 거수경례를 한다. 그런 비서실을 지나, 다음 방문을 열고, 비서실장실로 들어간다.

54. 평양 인민군 최고사령관 비서실장실 - 계속

책상에 앉아 집무를 보고 있는 근무복 차림의 여자 비서실장⁴인 임선실.

림계진: 비서실장 동무! 안녕하셨습니까? 여기 이동무 아시디요?

임선실: 알다마다요. (장학수를 보며) 박남철 대좌 아니십니까?

장학수, 침 꿀꺽.

림계진: 전 회의를 들어가야 하니, 박남철 동무 좀 여기서 챙기시라요.

임선실: 영광입네다. 다녀 오시라요.

림계진, 밖으로 나간다. 고요해지는 비서실장실.

임선실: (낮고 은밀한 목소리로) 고생이 많으십네다. 동무 얘기는 많이 들었습네다.

놀라는 장학수.

임선실: 모택동 동지가 즐겨 마시는 용정차가 있는데 맛 좀 보시겠습니까?

장학수: 고맙습네다.

임선실, 일어나서 차를 끓일 준비를 한다.

55. 평양 인민군 지역 사령관 회의실 - 계속

최고사령관을 비롯한 각 지역 사령관들이 빙 둘러앉아 원탁회의를 하고 있다. 격렬하게 진행되는 열띤 토론. 나이 지긋한 백발의 제1군단장이 말한다.

제1군단장: 원산, 주문진, 군산, 인천은 다 연막전술입네다.

최고사령관: 어째서?

제1군단장: 유엔군은 낙동강전선을 정면으로 뚫고 나오려 함네다. 원산, 인천, 군산, 주문진을 자꾸 거론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방어선을 흐트러뜨리기 위한 역정보 아니겠습니까?

제2군단장: 제 생각엔, 김포에 수백 대의 비행기를 띄워 낙하산부대를 투하할 가능성이 높습네다.

최고사령관: 왜?

제2군단장: 평양과 대구를 잇는 보급로를 끊어버릴 속셈으로. 전쟁은 보급로 싸움 아닙니까? 또, 가이네들은 기를 쓰고 김포 비행장을 확보하려고 할겁네다. 비행장만 확보하면, 공격과 수송면에서 다 썩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⁴ KLO SPY

최고사령관: 그럼, 빨리 빼게버리라우.
서울지역사령관: 빼게버리면 안됩니다. 우리도 써먹어야 됩니다.
최고사령관: 빨리 써먹고, 빨리 빼게버리라우. 누구 또 말해보라우.
제 3 군단장: 진, 오히려 예상을 깨고 신의주나 평양을 직접 때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우리의 전선의 간격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지네들한테 유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최고사령관: 닥치라우!

최고사령관의 한마디에 모두 얼어붙는다. 잠시 후, 분위기를 풀어주는 최고사령관.

최고사령관: 1 군단장께서 한 말씀 하시라고요.
제 1 군단장: 최고사령관 동지, 이미 다 뚫어 버렸습니다. 한뼘만 더 뚫으면 끝입니다. 낙동강전선에 남은 병력을 총 동원해서 날래 결정을 짓자우요.
최고사령관: 길티! 우리 1 군단장처럼 좀 신나는 소리 좀 하자우!
림계진: 왜 다들 인천을 빼고 지랄들입니까?

림계진, 손바닥으로 책상을 '탁' 친다. 림계진의 말투와 행동에, 인상이 구겨지는 사령관들.

최고사령관: 저, 저 림계진이 저거 말투 좀 보라우.
림계진: 맥아더가 돌대가립니까? 우리가 이미, 낙동강전선에만 쏟아붓고 있는데, 거기에 대가리를 디밀구 뚫고 올라온다? 등신들입니까? 쇠를 머리에 이고 불구덩이에 뛰어들게? 최고사령관 동지, 이 림계진이를 믿으시라고요. 분명 인천입니다!
최고사령관: 이보라! 미국 국방부장관도 인천의 성공확률이 5,000 분의 1 밖에 안 된다고, 안칸? 설마 그리로 오잖어?
림계진: 바로 그래서, 옴네다.
제 1 군단장: 기림, 날래 가서 동무가 총들고 지키고 있으라우. 평양에 테꾸 기어올라오지 말구.

그 말에 다들 웃는다.

서울지역사령관: 거, 거 좀, 림계진 동무는 욕심 좀 그만 부리라고요. 동무가 하두 지랄지랄 하니까, 최고사령관 동지께서, 해안포 부대를 팍팍 밀어줬잖습니까?
림계진: 냐!

림계진, 벌떡 일어나 총을 뽑아 서울지역사령관을 겨눈다. 서울지역사령관도 벌떡 일어나 림계진에게 총을 겨눈다.

최고사령관: (나지막이; 귀찮다는 듯이) 앉으라우. 앉으라우.
림계진과 서울지역사령관, 할 수 없이 앉는다.

림계진: 그게 서울지역사령관으로써 할 얘기네? 인천을 지키면 니네 서울도 내가 지켜주는 건데, 그게 할 얘기네? 이런 니미털! 쭈까! 까줄! 쭈긴 썬!⁵

⁵ 러시아 욕: 암캐: сука [쑤까]/병신: казёл [까줄]/개새끼: сукаин сын [쑤긴 썬]

림계진, 있는 힘을 다해 책상을 ‘팡’ 친다.

서울지역사령관: 말 조심하라우. 최고사령관 동지 앞에서, 대가리에 총알 심기 전에.

원산지역사령관: (조롱하듯, 림계진에게) 기뢰나 잔뜩 가지고 가라우.
우리 원산에 있는 것도 팍팍 밀어줄 테니까. 배가 터지면 못 들어올 것 아냐?

림계진: 기뢰가 만능은 아닙니다. 미제 놈들 소해정이 서해에만도 수십척입네다. 2-3 일이면 뺨 뚫려버릴 겁네다.
항공모함으로 밀고 들어오면 어떻게 막습니까?

원산지역사령관: 뭐? 정말이가?

림계진: 내레 직접 소련정보국에 알아봤습네다.

제 2 군단장: 그럼 어찌게? 낙동강전선에 있는 부대를 인천으로 빼낸다? 그럼 낙동강은 또 어찌고?

림계진: 지금 연합군들이 속속 동경에 집결한다는데, 그 많은 병력이, 부산항구로 들어와, 낙동강을 건넌다? 참 한가들 하십네다. 이젠--!

최고사령관: (말을 막으며) 림계진이, 너는 좀 가만히 좀 있으라우.
(좌중을 둘러보며) 제일 좋은 방법은 미제 연합군 놈들이 오기 전에, 낙동강에서 확 밀고 내려가, 부산 앞바다에 빠뜨리는 게 최고다. 헌데... 림계진의 말에도 일리는 있어. 5000 분의 1의 확률 밖에 안 된다는 게, 좀 걸린다 이 말이야. 이거... 대가리 터지겠구만. 아, 왜, 그 간나들은, 왜, 우리 집안싸움에, 왜들 다 여기저기 사방팔방에서 죄다 끼들고, 지랄들이네! 뭘 빼먹을려고! 밥먹고 하자우!

56. 평양 인민군 최고사령관 비서실장실 - 계속

회의를 마친 최고사령관과 림계진이 비서실장실로 들어온다.

림계진: 제가 아까 말씀 드린 박남철 대좌입네다.

장학수, 최고사령관에게 경례한다. 눈빛을 교환하는 최고사령관과 장학수. 속을 꿰뚫어보듯 쳐다보는 최고사령관. 조금의 미동도 없이 부동자세로 선 장학수, 잠시 적막이 흐른다.

최고사령관: 들어오라.

문을 열고 집무실로 들어가는 최고사령관.

57. 평양 인민군 최고사령관 집무실 - 계속

최고사령관 담배를 피우며 장학수에게 말한다.

최고사령관: 이 림계진이가 말이야. 이 놈은 최고가 될 수 있어.
승질만 좀 죽이면. (림계진에게) 승질 죽일 수 있겠어?
없디? 죽일 수 있으면 림계진이가 아니다. (장학수에게)
림계진이한테 얘기 다 들었다우. 동무가 기뢰에 대한 정보를 줬다지? 또 목숨도 구해주구?

림계진: (장학수에게) 최고사령관 동지께서, 곧 우리 인천에
지원군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다우.

림계진, 장학수를 격렬하게 포옹한다.

장학수: (최고사령관에게) 감사합니다, 최고사령관 동지.

장학수, 최고사령관에게 거수경례를 한다. 표정이 복잡한 장학수...

최고사령관: 러시아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 (림계진과 장학수를
번갈아 보며) “번치 않는 친구를 구하는 자여, 그대는
묘지로 가라.” 하하하! 우리 같은 젊은이들이 사랑과
우정을 믿지 않는다면, 그걸 어디 젊은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 둘의 우정을 지켜보겠어. 가보라우.

림계진과 장학수, 최고사령관에게 거수경례를 한 후, 집무실을 빠져 나온다.

58. 러시아 바 - 해질녘

시끌벅적한 실내. 술 마시며, 노래 부르며 춤추는 인민군 장교들로 혼잡하다. 장학수와 림계진,
보드카를 연신 들이킨다. 거나해진 그들. 무대에선, 러시아 여가수가 매혹적인 자세로 노래를
부르고 있다. 장학수의 대원들도 인민군 장교들과 섞여 흥겹게 술을 마시고 있다.

림계진: 100 년후, 자동차가 하늘을 날아다닐 그 시대에도, 우리
공산주의는 존재할까? 존재하겠지?

장학수: 총과 피로 물들인 억압은 오래 갈수 없어. 그런
유토피아가 아니지.

림계진: 유토피아? 우린 유토피아를 세우기 위해 총을 든 거야.

장학수: 웃기지 않나? 북과 남, 양쪽 다 총칼을 들고, 붉은 피로
물들이면서, 양쪽 다 해방과 자유를 위한대. 코메디아,
코메디.

림계진: 박남철이 넌 다 좋은데 광기가 없어! 광기가! 막시스트는
미쳐야 돼! 일단 미쳐야 돼. 미치지 않고서는 저지를 수
없고, 저지를 수 없으면, 혁명을 일으킬 수 없어!

림계진, 보드카를 가득 따라 단숨에 마신다.

림계진: (광기 어린 어조로) “한 마리 도깨비가 유럽에 나타났다.
공산주의라는 도깨비가...”⁶ 그 도깨비가 지금
조선반도에 나타났다. 이 얼마나 가슴이 터질듯한
광경인가? 이 시대에 태어나, 이 광경을 목도하는 것이
영광 아닌가? 동무!

장학수: (큰소리로 크게 웃는다) 하하하하하!

이때, 하룡이 림계진 옆으로 와서, 귓속말로 뭔가를 전한다. 림계진, 일어나 바 쪽으로 간다.
장학수와 대원들, 림계진을 주시하며,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는다. 림계진, 수화기를 들고 통화를
한다. 류장춘의 전화다.

류장춘: (영상 교차) 류장춘입네다.

림계진: 말하라우.

⁶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 머릿글 (The Communist Manifesto)

류장춘: 방금 전에 6240 정보국장한테서 연락이 왔습네다.
낙동강에서 출발했던 검열단의 시체가 경북영천 외곽에서
발견됐습네다.

림계진: 그렇다면?

류장춘: 지금 개네들 다 가짜입네다. 진짜 검열단을 다 썩
죽이고, 이리 잠입한 겁네다. 평양의 임선실이라도 방금
전에 체포됐습네다.

림계진, 표정이 굳어진다. 장학수와 대원들, 통화하는 림계진의 뒷모습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림계진의 통화가 길어지자, 뭔가 위기를 예감하는 장학수와 남기성과 대원들. 조용히 눈빛이
서로서로 오간다.

림계진: (조용히) 당장 봉쇄하라우. 여기를. 죄다 동원해. 당장
출동하라우.

전화를 끊는 림계진. 림계진이 돌아서는데 환하게 웃는 얼굴이다. 림계진, 자리로 돌아와
장학수와 합세한다. 장학수의 대원들, 시끌벅적하게 떠들면서도 결눈으로 림계진을 살핀다.

림계진: (은밀하게) 어이, 박남철이. 모스크바 있을 때, 백마
타봤네?

장학수: 올라, 나타샤, 안나, 마루슈카, 이솔다, 오카사나,
스베틀라나, 이리나, 그리고 소냐.

림계진: 이솔다 누구? 나도 이솔다 아는데?

장학수: 이솔다 쿠드리아붓세바⁷.

림계진: 오호! 어땠어?

장학수: 육감적이었디. 저기 저 여자처럼.

금발의 러시아 여가수에게 시선을 옮기는 장학수. 림계진의 시선도 장학수의 시선을 따라
여가수한테로 옮겨진다. 관능적인 여가수, 매혹적인 몸짓으로 노래를 부르고 있다.

그때, 하룡이 슬그머니 움직인다. 하룡, 어느 장교에게 귓속말을 하는 게 보인다. 잠시 뒤,
하룡에게 말을 들은 어느 장교가 문가에 서있는 부관에게 뭐라고 얘기한다. 부관, 자연스럽게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간다. 이를 놓치지 않고 계속 보고 있는 장학수와 대원들. [현재 상황들이
여가수의 노래와 교차로 보여진다.]

남기성을 중심으로 하여, 강봉포, 송상수, 오대수, 천달중, 양판동이 시선을 주고받으며 다가올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림계진과 장학수, 테이블 밑에서 총에 손이 간다. 그걸 기점으로 남기성과 대원들이 탁자 밑에서
손이 총으로 가고, 하룡과 인민군 장교들도 손이 총으로 향한다.

림계진: 막스가 '자본론'을 쓰자마자, 맨 처음으로 다윈에게 그
책을 헌사했다. 박남철이 넌, 다윈의 진화론을 어떻게
생각하네?

장학수: 난 무식해서 그딴 것 모르겠어. 그건 원숭이한테 가서
물어보라우.

림계진, 권총집의 고리를 풀어 언제라도 뽑을 태세를 갖춘다. 뒤이어, 장학수 역시 권총을 뽑을
준비를 한다. 장학수, 왼손에는 술잔이 들려있고, 시선은 잔을 향하고 있다. 잔 속의 투명한
보드카 액을 통해 영롱한 빛, 그리고 그 뒤로 비치는 일그러지는 림계진의 얼굴. 괴물 같다.

림계진: 신이, 한줌의 흙에, 숨 길을 불어넣어, '뿡'하고 인간이
태어났다고 생각하네?

⁷ Isolda Kudryavtseva

장학수: 기판진 신한테 가서 물어보라우.
림계진: 너도 다윈의 진화론 때문에, 인간의 암흑기가
 시작되었다고 생각하네? 이스라엘 토착신을 믿는
 기독교쟁이들처럼?
장학수: (얼굴이 일그러지고, 입술이 뒤틀리며) 요점이 뭐네!
림계진: (벌떡 일어나 총을 뽑아 겨누며) 말해보라우! 장학수!

그 말과 동시에 총을 뽑아 림계진을 겨누는 장학수.

그걸 기점으로, 남기성을 비롯한 대원들과, 하룡과 인민군 장교들이 일제히 총을 겨눈다. 서로가 서로에게 총을 겨누고 있는 어지러운 형국. 잠시, 숨막히는 적막이 흐른다.

림계진: 내가 맞았어. 넌 막시스트가 아니야.
장학수: 나도 한때는 막시스트였지. 여기서 끝내자우.

그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파발총 소리. 순간 다들 엎드린다. 보면, 양판동이 파발총을 '다다다다' 허공에 난사하고 있다. 파발총을 맞고 깨지는 전등과 유리창과 집기들. 아수라장이 되는 실내. 사방에 꽃잎처럼 흩날리는 파편들. 동선과 정황을 하나도 파악할 수 없다.

이 와중, 혼란을 틈타, 강봉포, 남기성, 송상수, 오대수, 천달중이 총을 쏘며 문 쪽으로 이동한다. 장학수도 총을 쏘며 문 쪽으로 다가간다. 일어나 역공을 취하려던 인민군 장교들 다수가 양판동의 총에 맞고 쓰러진다.

러시아 바 밖:

장학수와 대원들, 밖으로 뛰쳐나온다. 보니, 밖에 보초를 서던 인민군 병사 20 여명이 총소리를 듣고 한꺼번에 이쪽으로 사격자세를 취하며 달려오고 있다. 장학수, 태연하게 연기하며:

장학수: (인민군 병사들에게) 난동병이 안에 있다! 사령관이
 위태하다! 빨리 들어가라우!

장학수의 인민군 모습에 감쪽같이 속는 인민군 병사들, 장학수와 대원들을 지나, 바 쪽으로 서둘러 향한다. 그때 돌아서서 인민군 병사들을 다 쏘 죽이는 장학수와 대원들. 줄줄이 죽어나간다. 강봉포가 지프를 갈취하려 달려간다.

러시아 바 안:

한편, 안에서는 양판동이 여전히 기관총을 난사하고 있다. 조금만 뛰면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거리! 장학수와 대원들, 양판동을 엄호하려고, 문가에서 서둘러 총을 갈겨댄다.

이때, 수세에 몰리던 하룡, 탁자를 방패 삼아 양판동의 파발총을 피하다가, 벌떡 일어나 양판동을 향해 총을 쏘댄다. 하룡의 총에 맞고 무릎이 꺾이는 양판동. 그러자, 림계진과 인민군 장교들이 일제히 일어나 양판동을 향해 총을 쏘댄다. 벌집처럼 새까맣게 총을 맞고 즉사하는 양판동.

양판동이 쓰러지자, 문 입구를 향해 전진하는 림계진과 장교들. 이때, 문 밖에서 파발총이 또다시 발사된다. 문 뒤에 몸을 숨기고 기관총을 난사하는 장학수와 대원들. 다시 또 엎드리는 림계진과 장교들, 바닥에 널브러진 맥주 오크통과 탁자 등을 엄폐물 삼아 반격한다.

러시아 바 밖:

날아오는 총알들. 이때, 송상수가 문가에서 다리에 총을 맞는다. 송상수, 바 쪽으로 기관총을 갈기며 외친다.

송상수: 먼저 가시라요! 여긴 내가 맡았습니다!

이때, 강봉포의 지프가 바 문 앞에 선다. 지프에 올라타는, 오대수, 천달중, 남기성, 장학수.

송상수: 가! 가란 말야!

급 출발하는 지프. 순식간에 사라진다.

한편, 치열한 교전 끝에, 문가를 지키던 송상수를 제압하고 밖으로 나오는 림계진과 장교들. 밖엔 경비를 서던 인민군 병사들이 모조리 죽어있고, 장학수 일행은 온데간데 없다.

잠시 후, 류장춘이 수 십대의 트럭을 끌고 와, 림계진 앞에서 내린다.

류장춘: 잡았습니까? 쥐새끼들.

림계진, 군화발로 쓰레기 통을 있는 힘을 다해 ‘팡’ 찬다. 림계진의 오른손에 피가 흘러내리고 있다. 땅바닥에 떨어지는 핏방울.

59. 인천 거리 - 밤

달리는 수송트럭. 오이를 먹으며 운전을 하고 있는 김화균, 그 옆에는 김화영이 앉아있다.

60. 인천 시계방 앞 - 밤

통금을 알리는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진다. 길을 다니던 사람들은 모두 서둘러 건물 안으로 순식간에 사라진다. 텅 비어버린 거리.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온다.

불이 꺼지는 시계방. 그때, 김화균의 수송트럭이 시계방 앞에 와 스르륵 멈춘다. 잠시 후, 시계방 문이 열리고, 장학수와 대원들이 화물칸에 올라탄다. 출발하는 수송트럭.

시계방 문을 걸어 잠그는 최석중. 시계방의 어둠 속으로 사라진다.

61. 인천 시청 앞 광장 - 밤

김화균의 수송트럭이 밤길을 달리고 있다.

야채가 가득 실려있는 화물칸에 앉아있는 장학수와 강봉포, 남기성, 오대수, 천달중, 여전히 인민군복 차림이다. 모두 침울하고 말이 없다. 그때, 남기성이 장학수를 툭 친다. 남기성이 턱짓으로 앞쪽을 가리키자, 그쪽을 보는 장학수.

저쪽 앞에 시청광장을 지키는 인민군 초소가 보인다. 바리케이드가 쳐져 있고, 그 뒤엔 인민군 병사들이 물샐 틈 없는 경계를 서고 있다. 림계진의 지휘아래, 인민군 차량들이 설새 없이 오가고 있다. 초소병이 정지신호를 수송트럭을 향해 보낸다. 긴장하는 장학수와 대원들.

트럭이 바리케이드에 가까이 간다. 야채 속으로 몸을 감추는 장학수와 대원들, 총을 뽑아 들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다.

드디어, 수송트럭이 초소 앞에 멈춰 선다.

김화영: (초소병에게) 더운데 고생이 많구나야.

초소병: 아, 예, 누님.

김화영: (오이 자루를 건네며) 오이 몇 개 담았는데, 씹으라우.
땀날 땀 오이만한 동무가 없어.

초소병: 아이구, 이거, 번번히 고맙습네다. 누님이 최곱네다.

김화영: (웃으며) 단소리 집어치라우.

초소병, 김화영에게 전단지 한 장을 건넨다. 김화영, 전단지를 보면, 장학수와 대원들의 얼굴이 흑백으로 인쇄되어있다. 허나, 인쇄가 조잡하여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다.

초소병: 보면 즉시 신고하시라요.

김화영: 누굽매?

초소병: 간첩들이라요.

김화영: (전단을 보며) 이렇게 그지 같이 찍어가지구, 어케 찾네?
이놈은 멧돼지 같고, 이놈은 너같이 생겼다, 야?

초소병: (웃으며) 누님도 참!

수송트럭, 출발한다. 손까지 흔드는 초소병. 장학수와 대원들, 성난 림계진을 가까이서 보며, 광장을 무사히 빠져 나온다.

김화영: (화물칸에 대고 큰소리로) 내가 이래봬도 인천지역
인민군 부식담당 총책임자입니다. 김화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운전하는 이거이 내 친동생입니다.

김화균: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김화균이라고 합니다. 저는
다리는 절어도 운전 하나는 기똥차게 합니다. 고향에 가고
싶어서 켈로에 지원했는데 아직도 기냥 인천이네요.

남기성: 고향이 어딴데까?

김화균: 함경도 흥남이네요. 고향에 어머니 혼자 계시는데 어떻게
사시는지 갑갑해 미치겠습니다.

그들을 태운 트럭이 어둠 속을 뚫고 질주하고 있다. 지나가는 차량이 한대도 없다.

62. 동문당 앞 - 밤

주택가에 위치한 3층 높이의 서양식 건물인 “동문당.” 고서화를 취급하는 서점 겸 화랑이다.
장학수 일행을 태운 트럭이 동문당 앞에 와 멈춘다.

김화영: 잠깐들 계시네요.

김화영, 트럭에서 내려 동문당 안으로 들어갔다가, 잠시 후, 나온다. 트럭 화물칸 앞에 서는
김화영.

김화영: (작은 소리로) 내리시네요.

대원들, 짹짹 내려 그림자처럼 안으로 들어간다. 마지막으로 트럭에서 내려 안으로 들어가는
장학수.

63. 동문당 안 - 계속

장학수, 현관문을 열고 동문당 실내로 들어선다. 실내가 불을 안 켜, 어둡다. 온통 고서화들로
빼곡한 실내. 어두운 저편에서 누군가가 대원들을 맞이하고 있다. 장학수, 그쪽으로 다가간다.

목소리: 어서 오세요.

여자의 목소리다. 그쪽을 쳐다보는 장학수. 창가를 통해 흘러 들어오는 달빛에, 한채선의 모습이
보인다. 놀라는 두 사람. 한채선, 장학수를 보자 놀라움과 반가움을 감추지 못한다.

김화영: 자, 서로 인사하시네요. 여긴 동문당 주인의 손녀딸인
한채선입니다. 켈로부대원들이 대부분 이복출신들인데,
우리 한채선요원은 여기 인천 토박이입니다.

한채선: 한채선입니다. 힘껏 돕겠습니다.

한채선, 고개 숙여 인사한다.

장학수: 저는 대한민국 해군, 첩보수집 특수공작대 소속, 장학수
대위입니다.

장학수와 한채선, 서로 눈인사 한다.

남기성: 남기성 상사입니다.

오대수: 오대수 상병입니다.

천달중: 천달중 상병입니다.

강봉포: 전 밥하고, 빨래하고, 무전치고, 운전하고, 시키는 건
닥치는 대로 다 하는 만능해결사 막내둥이, 강봉포
일병입니다.

한채선, 대원들과 눈인사를 주고 받는다.

김화영: 자 따라 오시라고. 내가 책방 구경 좀 시켜드리겠습니다.
여기 동문당에 아주 귀한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천천히들
읽어 보시라고.

불을 켜지 않은 채 움직이는 사람들. 김화영을 따라 2 층으로 올라가는 장학수와 대원들, 2 층도
고서들로 빼곡하다.

김화영, 3 층으로 올라간다. 따라 올라가는 장학수와 대원들, 그리고 맨 마지막의 한채선.
3 층으로 모두 올라가자, 창문을 통해 주택들이 보인다.

김화영: 밖이 뽕 뚫려 시야가 좋기 때문에, 돌발상황에 대처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저 멀리 시청광장이 달빛을 받아 흰하 보인다. 도시 전체가 불이 꺼져있다.

한채선: 여긴 제 방이구요, 저쪽은 제 할아버지 방이에요.

보면, 두 방 다, 책상과 나무로 된 침대가 정갈하게 놓여있다.

곧, 3 층에서 2 층으로, 2 층에서 1 층으로 내려오는 그들. 김화영, 1 층 내실에 있는 자개농의
문을 열고, 옷걸이에 걸려있는 옷가지들의 제친 다음, 농의 벽을 힘껏 밀자, 지하로 가는 계단이
나온다. 장학수와 대원들, 저르기 놀란다. 김화영을 따라 지하로 내려가는 그들.

64. 동문당 지하실 - 계속

지하로 내려온 김화영, 호롱불을 켜다. 그러자, 한쪽 벽면에 무기와 탄약이 꽂 차있다. 깜짝
놀라는 그들.

김화영: 여기 지하실은 우리 켈로부대원들의 무기고 겸 연락처로
쓰이는 곳입니다. 그럼 폭들 쉬시라고. 전 갑니다.

김화영, 나간다. 잠시 후, 한채선이 주먹밥을 들고 내려온다.

CUT TO:

주먹밥으로 끼니를 때우는 장학수와 대원들.

한채선: 그럴리아 없겠지만, 혹시 여기서 외부 사람들과
마주치면, 다리를 찢뜩거리며 걸으세요. 그게 인민군에
징집이 안된 이유가 되니까요. 그리고, 어차피 지금은
쫓기는 몸이라, 인민군 복장이 더 위험할 거예요.

한채선, 장학수와 대원들에게 곱게 접힌 민간복을 한 벌씩 내어주며 말한다.

한채선: 옷 갈아 입으세요.

그러자마자 강봉포, 재빨리 바지춤을 풀며 옷을 갈아입으려 한다.

한채선: 악! 안돼요!

강봉포: (놀라며) 갈아 입으래메요?

빵 터지는 장학수와 대원들. 침울했던 분위기가 모처럼 유쾌해진다.

한채선: (얼굴이 빨개 지며) 제발요! 제가 나가면 갈아입으세요!

강봉포: 예.

남기성: 우리한테는 말을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우린 명령이
떨어지면, 즉각 실행합니다. (강봉포에게) 기라우!

강봉포, 말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간다. 한채선, 넋을 놓고 웃는다. 장학수도 한채선을 보며
웃는다. 모두가 함께 웃는다.

남기성: (웃고 있는 오대수와 천달중에게) 니네들도 기라우! 뽀뽀
기라우!

웃다가 말고 뽀뽀 기는 오대수와 천달중. 한채선, 배꼽잡고 웃는다.

남기성: 우린 명령이 목숨입네다.

남기성, 자랑스럽게 말한다.

남기성: 우린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습네다.

장학수: 그렇디. 니도 기라우.

뽀 잡던 남기성, 바닥을 북북 걷다. 데굴데굴 구르는 한채선.

65. 동경의 일식집 - 오후

맥아더와 맥아더의 부인 (Jean, 52 세), 맥아더의 아들 (Arthur, 12 세) 이 식사를 하고 있다. 맥아더, 식사를 하며 신문에 난 자기 기사를 읽고 있다. 맥아더 부인이 식사를 하다 말고, 신문지를 조용히 가져가, 신문을 못 읽게 덮는다. 그런 엄마와 아빠를, 천진난만한 눈빛으로, 흥미롭게 바라보는 맥아더의 아들.

맥아더 부인: [세상 사람들의 비난에 신경쓰지 마세요. 당신은 누가 뭐래도 훌륭해요. 당신은 늘 전쟁터에서, 가장 맨 앞, 최전방에 섰잖아요. 당신은 이번에도 또 승리를 하고 돌아올 거예요. 그러니 이런 신문기사에 마음 두지 말아요. 당신은 좋은 남편이고, 좋은 아버지고, 좋은 군인이예요.]

맥아더: [난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 지난 50 년간 전쟁터에서 목숨 걸고 싸운 것 밖에는 없는데. 그런 내가 왜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야 하는 거지? '오만하다!' '편협하다!' '견방지다!' '과대망상증 환자다!']

맥아더 부인: [그만해요. 전쟁이 끝나면 우리 뉴욕으로 돌아가요. 태평양에 너무 오래있었어요. 이제 당신도 당신을 위해 시간을 쓸 때가 됐잖아요, 네?]

맥아더: ...

맥아더 부인: [또 판생각하시는군요. 지금 당신 머릿속에, 전쟁의 모든 변수로 가득 차있는 거, 전 알아요. 하지만 이것만은 잊지 마세요. 당신 곁엔 저와 우리의 아들이 있다는 것을.]

맥아더, 어린 아들을 바라본다. 맥아더를 천진난만한 눈빛으로 보고 있는 맥아더의 아들.

맥아더 부인: [매일 기도하는 것도 잊지 마시구요.]

맥아더: [사람은 단지 여러 햇수를 살았다고 늙지 않는다오. 자신의 이상을 버릴 때 비로소 늙게 되지. 세월은 피부를 주름지게 하지만 감흥을 포기하는 것은 영혼을 주름지게 하는 거라오.⁸⁾

맥아더의 손을 잡는 부인.

⁸ "I promise to keep on living as though I expected to live forever. Nobody grows old by merely living a number of years. People grow old only by deserting their ideas. Years may wrinkle the skin, but to give up interest wrinkles the soul."

맥아더 부인: [당신의 이상 속에 저도 넣어주세요. 당신만을
사랑해요.]

그녀를 가만히 바라보는 맥아더. 맥아더 아들, 반짝이는 눈빛으로 맥아더를 바라본다. 창문너머로
지프에 앉아있는 에반스가 멀리 보인다.

66. 한반도 창공 - 밤

연합군의 C-47 수송기가 밤하늘을 날고 있다.

자막: 1950 년 9 월 5 일 23:17

수송기 안에 마주보고 앉아있는, 국군 복장 위에 낙하산을 착용한 **켈로부대원** 12 명.

67. 야산 - 계속

최석중, 숲 속에 숨어서 시계를 보고 있다. 옆에는 무장한 민간복차림의 새로운 **켈로부대원** 7 명이
눈빛을 반짝이며 밤하늘을 주시하고 있다.

그때, '웁~~' 하며 저 멀리서 수송기 소리가 아주 작게 들려온다. 그쪽으로 시선을 돌리는
최석중과 대원들.

68. 한반도 창공 - 계속

열리는 수송기 문. 수송기 안에서 **켈로부대원**들이 낙하 준비를 하고 있다. 미군장교의 신호가
떨어지자, 하나하나 낙하하기 시작하는 대원들... 주위는 온통 캄캄한 적막뿐이다.

잠시 후, 낙하산이 펼쳐지며 캄캄한 지상으로 하강하는 대원들. 야산이 가까이 보인다.

69. 야산 - 계속

드디어 하나 둘, 낙하산을 타고 착륙하는 대원들. 어떤 대원은 낙하산이 나무에 걸려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

그때 최석중의 부하인 **지진표**가 작은 소리로 최석중에게 말한다.

지진표: 대장, 갑세다.

최석중,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서려는데, 저쪽 어둠 속에서 미세한 움직임을 감지한다. 최석중,
손을 들어 막으며, 부하들을 제지시킨다.

최석중: 잠깐! 잠시만 기다리라우.

지진표: 날래 갑세다. 뭐하십니까?

최석중: 움직이지마!

순간, 적막을 깨는 '다다다다' 파발총소리. 어디서 나타났는지 어두운 숲 속에서 벌떼처럼
다가오며 파발총을 쏘대는 인민군 병사들. 낙하산 대원들 모두 순식간에 몰살당하고 만다. 이후,
인민군 틈 속에서 모습을 드러내는 하룡.

최석중, 갈대 사이로 하룡의 얼굴을 보고 있다.

70. 켈로 아지트 - 새벽

여기저기 흩어져 서있거나 앉아있는 **켈로부대원**들. 모두 침통한 표정들이다. 긴 적막이 흐르다가,
최석중이 무겁게 입을 연다.

최석중: 다들 짐싸라우.

지진표: 웹네키?

최석중: 여긴 노출되었다.

지진표: 어케요?

최석중: 이 안에 배신자가 있다.

지진표: 누구네까? 빨리 말하시라요!

최석중: 모른다. 확실한 건 여기 있는 사람들 중 한 명이다.

대원들, 서로서로 상대방을 쳐다보며 의심의 눈빛을 주고받는다. 최석중, 느리게 걸으며 대원들과 하나하나, 눈을 맞춘다.

최석중: 모두, 총을 바닥에 내려놔.

대원들, 모두 총을 바닥에 내려놓는다. 또다시, 한 사람 한 사람 눈을 바라보는 최석중.

최석중: 뺏지가 있다고, 켈로가 아니고. 군복을 입었다고 군인이 아니다. 니들 머리 속에 뭐가 들었나? '빨갱이'는 얼굴이 빨개서 빨갱인가?

최석중, 마지막으로 주위를 빙 둘러 살펴본 후, 결심이 선 듯 권총을 뽑아 총알을 확인한다. 총구에 소음기를 돌려 끼는 최석중. 최석중, 소음총을 '찰각'하고 장전하며 뚜벅뚜벅 지진표 앞으로 걸어간다. 지진표, 하얗게 질린다. 지진표 이마에 총구를 갖다 대는 최석중.

그때, 누군가가 안도의 숨을 내쉰다. 그걸 놓치지 않고 포착하는 최석중.

지진표: 대장, 이거 너무하지 않습네까? 내가 빨갱이라 이겁네까?
우리 오마이가 빨갱이 손에 돌아가셔서, 내래 오마이 복수를 하겠다고, 켈로에 들어온 남네다. 날 그 정도로 밖에 안봤습네까?

최석중: 입닥치라우!

지진표: 못닥치겠습네다! 쏘시라요! 날래 쏘시라요!

최석중, 총을 발사한다. '피슌!'하며 날아가 벽에 박히는 총알. 순간, 최석중, 누군가의 앞에 가서 선다. 연동길의 이마에 총을 겨누는 최석중.

최석중: 왜 그랬나?

연동길: 저는 아닙네다! 빨갱이가 절대 아닙네다!

최석중: (큰소리로 발악하며) 왜 그랬어!

순간, 연동길이 오줌을 지린다. 오줌을 보는 최석중과 모든 대원들. 연동길, 자기 오줌을 보고는 무릎을 꿇으며 체념한다. 울기 시작하는 연동길. 모든 대원들, 연동길을 애증 섞인 눈으로 보고 있다.

연동길: 난 우리가 이길 것 같지 않았습네다.

최석중: (분노에 찬 고함으로) 그래서!

연동길: 난 빨갱이고 뭐고 잘 모릅네다.

최석중: 그런데 왜!

최석중, 권총손잡이로 연동길의 머리를 갈긴다.

연동길: 승자의 편에 서고 싶었습네다.

순간 최석중, 방아쇠를 당긴다. 숨을 거두는 연동길.

71. 인천 주택가 - 새벽

어느 길에 혼자 서있는 최석중. 사람이 아무도 지나다니지 않자, 최석중, 나무로 된 맨홀 뚜껑을 열고 들어가, 땅속으로 사라진다.

72. 동문당 지하, 비밀통로 - 계속

계단을 내려와 플래시를 켜는 최석중. 하수도 통로를 걸어간다. 조금 지나자 좌측으로 갈라지는 비좁은 통로가 나온다. 비좁은 통로를 계속 걸어가는 최석중.

잠시 후, 동문당 지하실 비밀문 앞에 서는 최석중. 비밀문에 무전 치듯 두들기면서 암호를 교환한다. 비밀문을 열어주는 강봉포.

73. 동문당 지하실 - 계속

마주 앉아 얘기를 나누는 최석중과 장학수. 대원들도 둘의 얘기에 귀 기울이고 있다. 한채선도 계단에 서서 듣고 있다.

장학수: 낙하산 침투부대의 임무는 뭐였습니까?
최석중: 류장춘을 납치하는 거였습네다.
장학수: 뭘 알아내기 위해서요?
최석중: 두가집네다. 하나는 그 '꽃밭'에 대한 정보입네다.
본부에서는 '꽃밭'에 대한 정보 없인 여러모로
상륙작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네다. 또 하나는,
평양, 신의주까지 속전속결로 치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전체 인민군 전력을 완벽히 파악하고 있는, 정보 전문가가
필요함네다. 그게 류장춘입네다.
장학수: 왜 립계진이 아니라, 류장춘입네까?
최석중: 립계진은 생포해봤자, 불넘이 아니디요.

장학수와 대원들, 고개를 끄덕이면서 진지하게 듣고 있다.

최석중: 어제부터, 영덕에서 상륙작전이 시작됐습네다.
교란작전입네다. 앞으로도 원산, 군산, 주문진 등지에서
이와 유사한 교란작전이 계속 될겁네다.
장학수: 최종목적지는 분명 인천입네까?
최석중: 분명한 건 없습네다. 언제 어떻게 작전이 바뀔지는
우리로선 알 수 없습네다. 지금, 군산, 영해, 원산,
삼척, 해주, 등등, 십수군데에서 우리와 같은 첩보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네다. 우린 다음 지시만을 따를
뿐입네다.
장학수: 다음 지시는 뭘네까?
최석중: 류장춘을 생포하여, 연합군한테 넘겨야 함네다.
장학수: 알감습네다.
최석중: 필요한 건 다 지원하겠습네다. 앞으로 일주일 안에 조국의
운명이 결정되네다. (장학수와 대원들 둘러보며,
심각하게) 작전수행 시, 놈들에게 붙잡히면 그 즉시,
자결하라는 본부의 지시가 있었습네다.
장학수: 알감습네다.

74. 동문당 3층, 할아버지 방 - 낮

서재를 둘러보는 한채선과 장학수. 장학수, 서재에 꽂혀진 고서들을 유심히 살펴본다. 그러다가 어떤 책은 뽑아서 훑어 보기도 한다. 할아버지의 책상 앞에 서는 장학수. 책상 위엔 만년필과 잉크가 정갈하게 놓여있다.

한채선: 앉으셔도 되요.

장학수, 책상 앞에 앉는다. 장학수, 만년필을 집어, 만져본다. 오랜만에 만져보는 만년필이다. 만년필 뚜껑을 열고 해부해보는 장학수, 그리운 추억이 그의 얼굴에 스쳐간다.

한채선: 제가 어릴 적에 용돈 모아 사드린 거예요. 중요한 편지는
 꼭 그 만년필로 쓰셨어요.

장학수, 한채선을 본다. 한채선의 얼굴에 할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짙게 묻어있다. 금방이라도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은 한채선의 표정. 한채선,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 장롱 쪽으로 가서, 장롱 문을 옆으로 스르륵 연다. 거기엔 할아버지의 옷들이 정갈하게 걸려있다. 고급 신사복들이다. 한채선, 와이셔츠 중에 하나를 골라 왼쪽 팔에 걸치고, 정장 중에서 한 벌을 신중히 골라, 다시 왼쪽 팔에 걸친다. 수십 개의 넥타이를 손으로 헤아리는 한채선의 손...

DISSOLVE TO:

책상 위에 펼쳐지는 대나무 발. 그 속에서 각종 동양화 붓들이 나온다...

이어서 먹, 물감, 화장 분가루 등이 책상 위에 놓여진다...

책상에 가만히 앉아있는 장학수의 뒷모습...

한채선, 장학수의 얼굴에 섬세하게 붓질을 하기 시작한다...

빛으로 빚겨지는 장학수의 머리카락. 빛이 지나칠 때마다 점점 회색으로 변한다...

장학수, 일어선다. 장학수, 앞을 보면 완벽하게 노인으로 변장해있다. 양복과 조끼와 시계줄이 잘 어울리는 장학수의 모습. 한채선, 그런 장학수를 바라보며 마치 자기 작품인 냥 스스로 감탄한다...

중절모를 건네는 한채선. 장학수, 거울을 보며 중절모를 가지런히 쓴다...

한채선, 다시 지팡이를 건넨다. 장학수, 지팡이를 왼쪽 팔에 걸치고 돌아선다...

걸음이 서서히 노인처럼 변하는 장학수의 뒷모습...

75. 인천 시내 거리 - 낮

장학수와 한채선, 나란히 걷고 있다. 지팡이를 의지해 노인처럼 힘없이 걷고 있는 장학수. 한채선, 그런 장학수의 걸음걸이를 눈 여겨 살펴본다.

장학수: 어떻습니까?

한채선: 아직도 지팡이가 필요해 보이지 않아요. 등은 너무
 굽었어요. 과장돼 보여요.

장학수, 허리를 약간 펴고, 지팡이에 더욱 의지해 걷는다.

장학수: 지금은요?

한채선, 대답대신 불쑥 장학수의 팔짱을 낀다. 놀라는 장학수.

한채선: 할아버지와 이렇게 산책한 적이 많아요.

장학수: 할아버진 어떤 분이셨습니까?

한채선: 엄격함과 따스함을 반씩 가지고 계신 분이셨어요.

장학수: 부모님은 어디 사십니까?

한채선: 아버지는 제가 어릴 적에 상해임시정부에 독립운동 한다고
 가셨고, 엄마는 그런 아버지 찾으러 간다고 나가셨는데,
 두 분 다 소식을 몰라요. 할아버지는 전쟁이 터진 뒤,
 인민군들이 조사한다고 잡아갔는데, 그 뒤론 아무 소식도
 없어요. 세분 다 어디 계신지, 지금도 살아 계신지
 돌아가셨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가만히 듣고만 있는 장학수. 앞을 보면 인천시립병원이 보인다. 담벽을 지나 정문으로 들어서는 그들.

한채선: 전 저쪽으로 가야 돼요.

장학수, 고개를 끄덕인다.

한채선: (느닷없이) 결혼하셨어요?

장학수: 아뇨. 전쟁 끝나면 결혼합세다.

한채선: (수줍게 웃으며) 좋아요.

한채선, 걸어가다가, 뒤돌아서 장학수를 보면 싱긋 웃고는, 직원실 건물을 향해 급히 걸어간다.

76. 인천 시립 병원 - 낮

장학수, 건물 현관으로 들어선다. 들어서자마자 벽면에 보이는 장학수와 대원들의 수배 전단지. 그들의 얼굴이 한 장 한 장씩 크게 보인다. 인쇄가 조잡해, 얼굴을 알아보기 쉽지 않다. 수배 전단지 벽보를 태연하게 지나가는 장학수.

복도를 지나, 수혈실의 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본다. 비어있는 수혈실. 장학수, 수혈실에 들어가 이리저리 살핀 후 창문을 통해 창 밖을 내다본다. 창문 문고리를 잡고 창문을 여는 장학수. 그때, 림계진의 일행이 탄 차량들이 병원 정문을 요란스럽게 들어서게 보인다. 태연히 창문을 닫는 장학수, 그곳을 빠져 나와 의무실로 향한다.

의무실엔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다. 그 중에 한채선의 모습도 보인다.

다시 복도를 지나, 전직 사령관이 있는 입원실을 향해 걸어간다. 입원실 입구를 지키고 서있는 인민군 보초 2명. 장학수가 입원실 문을 열자, 보초병이 소리친다.

보초병: 누구십네까? 어떻게 오셨습네까?

장학수, 말없이 문을 닫고, 치매환자인 냥 저쪽으로 발걸음을 돌린다.

다시 복도를 걸어가는데, 그때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떠들썩하게 나타나는 림계진과 류장춘과 하룡과 인민군 병사들. 림계진의 무리들, 복도 한가운데 서있는 장학수를 지나친다. 림계진, 장학수와 눈이 마주치나,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가버린다.

복도 벤치에 앉은 장학수. 눈앞, 건너편 벽에 붙어있는 수배전단지 벽보가 다시 보인다. 시간이 흐른다...

[시간경과]

부상당한 인민군들이 지나가고, 의사와 간호사들이 지나가고, 환자와 환자가족이 지나가고, 한채선이 지나가고, 수혈을 마친 림계진 일행이 지나간다. 림계진, 복도를 지나는데 벤치에 앉아있는 장학수를 다시 본다. 또다시, 알아보지 못하고 지나치는 림계진. 뒤따라가는 류장춘을 유심히 응시하는 장학수.

오후 햇살이 벽을 타고 점점 올라가고 있다. 어느덧, 밤이 됐다.

77. 인천 시립 병원 - 밤 [시간경과]

아직도 복도 벤치에 홀로 앉아있는 장학수. 복도엔 오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홀로 생각에 잠겨있는 장학수.

낮에서부터 장학수를 눈여겨보던 인민군 병사가 장학수에게 다가와 묻는다.

인민군 병사: 왜 계속 여기 있습네까? 어디 아픈네까?

장학수, 인민군 병사에게 뭐라고 작게 말한다. 허나, 인민군 병사, 알아듣지 못한다. 인민군 병사, 자기 귀를 장학수에게 갖다 대며 묻는다.

인민군 병사: 뭐요?

장학수: (쉼 목소리로) 아-파-요.

인민군 병사: 아파요? 어디가요?

장학수: 다-아-파-요.

인민군 병사: 곧 통금입네다. 병원 끝났어요. 날래 가시라요.

장학수, 지팡이를 의지해서 힘겹게 일어선다. 터벅터벅 복도를 나서는 장학수.

78. 동경항, 맥아더 항만 집무실 - 새벽

해가 뜨고 있다. 항만 집무실에서 일출을 보고 있는 맥아더. 그의 눈 앞에 펼쳐지는 광경: 수 백대의 군함에서 16 개국의 75000 명의 연합군들이 넓은 항만의 광장으로 집결하고 있다. 군복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말투도 다르다.

그의 트레이드 마크인 필리핀 장군모자와 썬글라스, 옥수수 파이프를 입에 물고 발코니로 나가는 맥아더. 연합군들 그의 모습을 한눈에 알아본다.

발코니에 서있는 맥아더의 위엄 있는 모습, 그의 앞에 연합군들이 새까맣게 도열해 선다. 장대한 풍경. 그때, 옆에 서있는 부관 발렌타인이 맥아더에게 보고한다.

발렌타인: [현재, 미국, 영국, 프랑스, 호주 등 16 개국의 병력
75,000 명과 항공모함 4 척, 군함 260 척이 동경과
부산에 분산되어 집결해 있습니다. 3 일후인 9 월 12 일,
남해상에서 두 선단이 합세할 예정입니다.]

그때, 에반스가 급한 걸음으로 맥아더에게 다가온다.

에반스: [트루먼 대통령께서 전화하셨습니다. 지금 통화하고 싶어
하십니다.]
맥아더: (점잖게) [바쁘다 그래.]
에반스: [일본 천황께서 만나고 싶어하십니다.]
맥아더: [찾아오라 그래.]
에반스: [알겠습니다.]

에반스, 거수경례를 한 뒤 돌아서려는데

맥아더: [X-RAY '낚시'작전은 어떻게 되거나?]
에반스: [내일 개시합니다.]

맥아더, 고개를 끄덕인다. 에반스, 도로 나간다. 에반스가 나가자, 발렌타인, 보고를 다시 이어간다.

발렌타인: [추가로 인도,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이탈리아 등,
5 개국에서 의료부대가 오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 도착
예정입니다.]
맥아더: [소해 작업은 시작되었나?]
발렌타인: [일본 함정까지 추가 투입되었습니다. 인천 앞 바다만
제외하고 완료되었습니다.]
맥아더: [사다리대는 모두 제작되었나?]
발렌타인: [예. 그리고, 한가지 반갑지 않은 소식이 있습니다.]
맥아더: [뭔가?]
발렌타인: [필리핀 해구에서 강력한 태풍이 발생해서 북진할
것이라는 예보를 받았습니다.]
맥아더: [태풍? 이름이 뭐지?]
발렌타인: [제인입니다.]
맥아더: [제인? 좋은 이름이군.]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는 맥아더.

79. 펠리핀 바다 - 낮

고요한 바다에 먹구름이 끼는가 싶더니, 이내 천둥과 함께 번개가 치고, 강력한 바람이 분다. 그 바람이 이내 어마어마한 회오리 바람으로 변하면서 거대한 태풍이 생성되기 시작한다. 무시무시한 초자연적 현상이다.

80. 인천 장터 - 낮

맑은 하늘. 모든 것을 다 파는 시장통. 간난 아기를 업은 어느 **아낙(옥길련)**, 쭈그리고 앉아 나물을 팔고 있다. 그때, 김화영이 옥길련 앞에 선다.

김화영: 옥길련 동무 되십니까?

옥길련,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인다.

김화영: 누가 좀 뵈자는데 날 좀 따라오시라요.

옥길련, 그 말에 겁을 먹는다.

옥길련: 당에서 나왔나요?

김화영: 아닙니다.

옥길련: 전 그냥 나물만 팔고 있는데. 제가 뭘 했다고 그러시나요?

김화영: (손사래 치며) 아아, 그런 거 아닙니다. 잠깐 따라오시라요.

옥길련, 이 나물을 들고 가나 어쩌나 망설이고 있는데:

김화영: (바로 옆 장사치 아낙에게; 당당하게) 여기 나물 좀 봐주시라요!

옆의 아낙: 예.

김화영, 성큼성큼 걸어가고, 옥길련, 겁에 질려 쭈뼛쭈뼛 따라간다.

81. 인천 장터 인근 골목 - 계속

여기저기 인민군들이 보이지만 다소 한가로운 골목 풍경. 수송트럭 화물칸 앞에 서는 김화영과 옥길련. 야채가 가득한 화물칸에서, 야채더미 사이로 고개를 내미는 남기성. 옥길련, 남기성을 보자, 눈물이 주르륵 흐른다.

김화영: (조용히 하라는 손짓으로) 쉬잇!

남기성, 손을 약간 내민다. 옥길련, 남기성의 손을 두 손으로 꼭 붙잡는다. 하염없이 소리 죽여 울고 있는 옥길련. 옥길련, 업고 있던 간난아기를 두 손으로 들어 남기성에게 올려준다.

남기성, 아기를 안는다. 아기가 방실방실 웃는다. 남기성, 이내 눈시울이 붉어진다. 뒤에 있던 장학수와 대원들도 남기성과 아기를 번갈아 보고 있다. 남기성, 아기를 다시 옥길련에게 돌려주려는데, 장학수가 자기도 안아보자고 손짓한다.

장학수, 남기성의 아기를 안는다. 이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을 안듯이. 장학수, 남기성에게 아기를 넘기려는데, 오대수가 손짓한다.

장학수, 오대수한테 아기를 건넨다. 오대수, 아기를 소중히 안고 얼른다. 아기가 천달중에게 넘겨진다. 다시 강봉포에게 넘겨진다. 한번씩 돌아가며 아기를 안아보는 대원들.

아기가 다시 남기성에게 건네지고, 남기성이 옥길련에게 아기를 건넨다. 아기를 받아드는 옥길련, 아기에게 얼굴을 파묻고는, 소리 없이 흐느낀다. 그러는 사이 트럭이 출발한다. 계속 흐느끼는 옥길련.

트럭의 남기성도 고개를 푹 꺾은채 말이 없다.

82. 동문당 지하실 - 밤

장학수와 대원들이 각자 간이 침대에 누워있다. 각자 아기를 생각하는 듯, 눈만 말뚱말뚱 뜬 채 말이 없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간다.

장학수, 침대에서 일어선다.

83. 동문당 3층 - 계속

장학수, 계단을 통해 3층으로 올라간다. 그의 걸음에 심장박동이 느껴진다. 숨도 가쁘게 쉬는 장학수. 달빛으로 물든 3층 실내. 장학수, 한채선의 방문 앞에 서서, 잠시 머뭇거린다. 손을 들어 노크하려는데, 손이 떨린다. 이윽고 노크를 하는 장학수, 소리가 어색하다. 시간이 지나도 열리지 않자, 돌아서는 장학수.

그때, 조용히 열리는 문. 하얀 잠옷가운에 머리를 풀은 한채선이 장학수를 보고 있다. 달빛에 그녀의 실루엣이 드러난다. 가만히 서서 서로만 바라보는 두 사람. 한채선, 장학수의 말을 기다리다, 먼저 입을 연다.

한채선: 무슨 일이시죠?

장학수, 한채선한테 천천히 다가가, 말없이 포옹을 한다. 가만히 서있는 한채선.

장학수: 다시는 못 볼 것 같아서... 못 보면 억울할 것 같아서...
앞으로 못 본다면 기억하고 싶어서...

한채선: 결혼하자는 말은 농담이었나요?

장학수: 아닙니다.

한채선: 그럼, 또 봐야죠.

장학수, 한채선에게 키스를 한다. 받아들이는 한채선, 장학수를 포옹한다.

CUT TO:

이내, 불덩이가 되는 장학수와 한채선.

CUT TO:

‘운우의 정’이 끝나고, 침대에 나란히 누워있는 한채선과 장학수.

장학수: ...우리 늘, 과장해서 생각합니다. ‘요것만 해내면,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우리 손에 조국의 운명이
달려있다.’ ‘우리가 해내지 못한다면 조국도 끝이다.’ 안
그러면, 겁먹고, 임무완수를 못합니다.

한채선: 왜 특수공작대에 지원하셨어요?

장학수: 제가 지원한 게 아니라, 차출되었습니다. 켈로에 먼저
들어갔는데, 거기서 재작년에 해군으로 편입했습니다.

한채선: 그럼 켈로도 되고 해군도 되는 건가요?

장학수: 그렇습니다.

한채선: 고향이 어디예요?

장학수: 인천 만석동입니다.

한채선: (놀라며) 인천, 인천요? 그런데 왜 지금도 이북 사투리를
쓰세요?

장학수: 그렇게 훈련받고 행동하도록 명령 받았습시다. 잠꼬대도
이북말로 해야됩니다. 그게 규칙입니다.

한채선: 규칙을 어겨보세요. 저한테 인천말로 해보세요.

장학수: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장학수, 어색한 표준말을 쓴다. 이에 웃는 한채선, 장학수의 품을 파고든다.

한채선: 전쟁은 끝날까요? 우리가 이길까요?
장학수: 전쟁은 곧 끝납네다. 우리가 이길겁네다. 이깁네다.
이겨야 됩네다.
한채선: 전쟁 끝나면... 우리 정말 결혼하는 건가요?
장학수: 인천시청 앞 광장에서 성대한 결혼식을 올립세다.
1950년 12월 31일 낮 12시. 외우시라요.

한채선, 장학수에게 키스를 한다. 다시 뜨거워지는 그들...

84. 인천 인민군 방어지구 사령부, 사령관 집무실 - 아침

림계진, 거울을 보며 면도를 한다. 잘 다려진 군복을 입고, 부츠에 광을 내는 림계진. 그때, 류장춘이 들어온다.

류장춘: 편히 주무셨습니까?
림계진: 그래.

류장춘, 들고 온 서류를 림계진의 책상 위에 올려놓는다.

류장춘: 소련 정보국에서 입수한 미국 상원의회 보고서입네다.
림계진: 내용이 뭐이가?
류장춘: 상륙작전이 군산으로 확정됐다는 겁네다.
림계진: 아니, 상원의회 보고서에 군사기밀을 그대로 노출시키는
나라도 있나?
류장춘: (비웃으며) 미국은 그렇습네다. 민주주의의 한계디요.
림계진: 류장춘이 넌 다 좋은데, 군인치곤 순진해.

류장춘, 멋지게 웃는다. 림계진, 거울을 보며 모자를 쓴다.

림계진: 가자우.

림계진, 문을 열고 나간다. 따라나가는 류장춘.

85. 인천 인민군 방어지구 사령부, 초소 - 아침

이른 아침, 수 십개의 확성기가 달린 탑에서 울려 퍼지는 "인터나쇼날(Internationale)."

초소병들의 경례를 받으며 정문을 나서는 림계진의 지프. 앞엔 하룡, 뒷좌석에 림계진과 류장춘이 앉아 있다. 기관총을 단 두대의 장갑차가 림계진의 지프를 뒤따르며 호위하고 있다.

86. 인천 시청 앞 광장 - 계속

림계진의 지프와 두 대의 장갑차가 광장을 통과하여 달리고 있다.

거리엔 여전히 '인터나쇼날'이 울려 퍼지고 있고,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인터나쇼날'을 듣고 있다.

87. 인천 시립 병원 정문 - 계속

림계진의 지프와 두 대의 장갑차가 병원 정문을 통과하여, 건물 앞에 멈춰 선다. 지프에서 내리는 림계진과 류장춘과 하룡. 그들, 건물 안으로 들어간다. 이중삼중으로 경계가 삼엄하다.

88. 인천 시립 병원 안 - 계속

수혈실로 직행하는 림계진과 류장춘과 하룡. 그들 뒤로 인민군 병사들이 따르고 있다.

수혈실:

간호사복 차림의 한채선, 림계진에게 수혈을 해주고 있다. 뒤편에 류장춘과 하룡이 서있다.

림계진: (류장춘에게) 어서 니 일 보라우.
류장춘 나간다.

X-RAY 실:

의사 가운을 입고 있는 장학수, 8 살짜리 **여자아이** (켈로 부대원)에게 묻는다. 둘의 긴박한 대화.

장학수: 니 이름이 뭐이가?
윤길순: 윤길순이에요.
장학수: 길순아, 잘 할 수 있겠어?
윤길순: (맹랑하게) 그럼요. 벌써 세 번째 작전인데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장학수: 그래, 길순아. 조국의 운명이 너한테 달려있다.
윤길순: 네. 빨갱이는 나빠요. 싫어요. 절 믿으세요.
장학수: 그래. 고맙다.

입원실:

류장춘, 환자복을 입고 침대에 누워있는 인민군 병사들에게 훈장을 달아주고 있다.

류장춘: 동무의 희생과 열정은 우리 공화국 인민들에게 희망과
기대를 낳게 하오. 사령관 동지를 대신하여 부관인 내가
이 훈장을 수여하오.

감격에 차서 거수경례를 하는 인민군 환자 병사. 류장춘, 옆 침대로 이동한다.

류장춘: 동무의 희생과 열정은 우리 공화국 인민들에게 희망과
기대를 낳게 하오. 사령관 동지를 대신하여 부관인 내가
이 훈장을 수여하오.

또 다시 감격에 차서 거수경례를 하는 다른 인민군 환자 병사. 그때, 꽃다발을 든 윤길순이 복도를 지나가는 것이 열린 문을 통해 류장춘에게 보여진다.

다른 입원실:

류장춘, 훈장수여를 끝내고 입원실을 나오려는데, 윤길순이 꽃다발을 들고 저쪽에서 이쪽으로 오고 있다. 윤길순을 기다리는 류장춘. 윤길순, 류장춘에게 꽃다발을 건넨다.

윤길순: 이거 드리래요.
류장춘: 누가?
윤길순: 저기, 저쪽. 양장 입은 이쁜 언니가요.
류장춘: 어땠는데?
윤길순: (저쪽을 손으로 가리키며) 저기요.

윤길순, 어디론가 걷기 시작한다. 윤길순을 따라가는 류장춘.

89. 인천 시내 양복점 앞 골목 (일차선 도로) - 계속

목재를 가득 실은 트럭이 시동이 켜있는 상태로 서있다. 운전석에 앉아있는 천달중, 뭔가 초조한 기색이다. 트럭 뒤, 시동이 켜있는 상태로 서있는 지프. 운전석에 앉아있는 오대수, 역시 초조한 기색이다.

90. 인천 시립 병원 안 - 계속

입원실 복도:

앞장 서서 가는 윤길순, 뒤따르는 류장춘. 오른쪽 복도로 꺾어 들어가 문을 열고 들어가는 윤길순.

다른 입원실:

윤길순을 따라 들어오는 류장춘. 입원실은 텅비어있다. 그 순간, 의사가운을 입은 장학수와 남기성과 강봉포가 류장춘을 덮친다. 강하게 저항하는 류장춘, 만만치 않다.

장학수가 류장춘의 턱을 날린다. 비틀거리는 순간 남기성이 류장춘의 뒤에서 헤드락을 걸어 목을 조인다. 그 틈을 노려 강봉포가 수건을 입에 쑤서 넣고, 붕대로 류장춘의 입을 칭칭 감아 버린다. 강하게 저항하는 류장춘, 소리없이 신음한다. 옥신각신 끝에 강봉포, 류장춘의 팔을 제압하고, 장학수가 팔뚝에 마취주사를 쏜다. 점차 의식을 잃어가는 류장춘. 눈빛만은 여전히 증오에 차있다.

수혈실:

뽐히는 수혈 바늘. 림계진, 수혈이 끝난다. 한채선, 림계진을 도와, 침대에서 일으킨다. 림계진, 어지러운 듯, 침대에 앉아 안정을 취한다. 하룻, 수혈실을 지키고 있다.

병원 복도:

마스크에 의사가운을 입은 장학수, 남기성, 강봉포가 응급침대를 끌고 복도를 빠른 걸음으로 가고 있다. 시체처럼 침대보로 전신이 덮혀진 류장춘, 기동이 없다.

수혈실:

수혈실 문가에 선 한채선, 멀리 복도에서 응급침대를 끌고 오는 장학수와 대원들을 보고는, 수혈실 안으로 들어간다. 한채선, 의료쟁반을 들고 오며 림계진에게 말한다. 의료쟁반엔 두 대의 주사기가 놓여있다.

한채선: 사령관님, 주사 맞으셔야 합니다.

할 수 없이 침대에 엎어져 누는 림계진. 엉덩이를 잔다. 한채선, 망설임 없이 주사를 꽂아버린다.

병원 복도:

장학수, 남기성, 강봉포가 여전히 응급침대를 끌며 빠른 걸음으로 가고 있다. 그때, 응급침대에서 시체가 벌떡 일어난다. 류장춘이다!

순간, 류장춘을 강타하는 남기성의 주먹. 류장춘, 다시 쓰러진다. 그때, 이를 본 인민군 병사가 소리친다.

인민군 병사 1: 서라우! 거기 서라우!

침대를 밀며 뛰기 시작하는 장학수와 대원들. 허공에 총을 쏘는 인민군 병사 1. '탕!'

수혈실:

하룻, 총소리에 놀라 문을 열고 뛰쳐나간다. 순간 한채선, 림계진의 엉덩이에 두 번째 주사를 폭 찌러 넣는다. 움찔하는 림계진.

병원 복도:

인민군 병사 2가 하룻에게 달려오며 소리친다.

인민군 병사 2: 류장춘 부관 동무가 안 보입네다!

놀라는 하룻.

현관으로 통하는 복도:

현관문을 향해 돌진하는 장학수 일행. 총을 쏘며 뒤쫓는 인민군 병사 1.

인민군 병사 1: (보초에게) 잡으라우! 잡으라우!

잡으려는 보초병들을 소음총 (소음기 장착한 COLT .45) 으로 쏘 죽이는 장학수와 남기성.

수혈실:

여전히 림계진의 엉덩이에 두 번째 주사를 놓고 있는 한채선. 그때, 하룡이 수혈실에 들이닥치며 소리친다.

하룡: 류장춘이가 납치됐습네다.

림계진: 주사 뽑으라우. 날래.

긴장하는 한채선, 주사바늘을 서둘러 뽑는다. 뛰쳐나가는 림계진과 하룡.

91. 인천 시립 병원, 현관 앞 - 계속

장학수 일행, 소음총으로 다가오는 인민군 병사들을 제압하며 현관 밖으로 뛰쳐나간다. . 이와 동시에, 어디선가 달려와 현관 앞에 '끼익!' 멈추는 인민군 트럭. 운전석엔 인민군 모자를 쓴 김화균이 앉아있다.

화물칸에 쭈뼛하게 올라타는 장학수, 강봉포와 남기성이 류장춘을 들어올리자, 왼손으로 류장춘의 목덜미를 낚아채 화물칸으로 던져버린다. 동시에, '피슈! 피슈!' 오른손으로 소음총을 쏘대며 쫓아오는 인민군 병사들을 사살한다. 급출발하는 트럭. 달려가며 올라타는 남기성과 강봉포.

현관:

뒤이어 뛰쳐나오는 림계진 일행.

림계진: 정문을 봉쇄하라우!

이와 동시에, 인민군 지프와 장갑차가 림계진 앞에 '끼익!' 하고 멈춰 선다. 분승하여 올라타는 림계진, 하룡, 및 인민군 병사들.

92. 인천 시립 병원, 정문 앞 - 계속

바리케이드가 내려진다. 김화균의 트럭이 바리케이드를 그대로 치고 돌진한다. 뒤쫓는 림계진의 지프와 장갑차 두 대. 김화균의 트럭을 향해 설치된 기관총을 난사하는 림계진과 하룡. 장갑차에서도 기관총이 발사된다.

93. 인천 시내 거리 1 - 계속

여전히 림계진의 지프와 장갑차에서 기관총이 난사된다. 이쪽저쪽의 다른 길에서 인민군 차량들이 김화균의 트럭을 쫓고 있다. 그때, 김화균의 트럭의 화물칸 천막이 열리며 삼각대 위에 장착된 CAL .30 기관총이 드러난다. 끊임없이 불을 뿜는 총구.

림계진의 지프가 장학수의 기관총 세례를 받고 비틀거리다 상점을 들이받는다. 림계진, 성난 얼굴로 지프에서 내려, 뒤따라오던 장갑차의 지휘관을 끌어내고 자기가 올라탄다.

김화균의 트럭 앞에 나타나는 다른 인민군 차량. 김화균, 급커브를 틀어 옆길로 샌다. 허나, 그 앞에서도 또 다른 인민군 차량이 나타난다. 또 다시, 급커브를 트는 김화균의 트럭.

94. 인천시내 양복점 앞 골목 (일차선 도로) - 계속

여전히 대기 중인 천달중의 트럭과 오대수의 지프. 총성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총소리를 들으며 긴장하는 천달중과 오대수.

95. 인천 시내 거리 2 - 계속

어느새 별집이 된 김화균의 트럭, 몰리고 또 몰린다. 계속 기관총을 쏘대는 장학수. 이때, 림계진의 장갑차가 다시 바짝 따라붙고 있다. 림계진도 기관총을 갈겨댄다. 차량들이 흔들려 빗나가는 예광탄 궤적이 빗발친다.

이때, 수류탄을 던지는 남기성. 수류탄이 터지면서 간판이 '붕' 날아가 하룡의 머리를 스치고 지나간다. 이내, 피범벅이 되는 하룡. 끔찍도 안하고 계속 돌진한다.

김화균의 트럭 옆으로 붙는 인민군 지프. 악바리(인민군)가 '붕' 날라, 김화균 트럭 옆의 쇠기둥을 움켜잡고 매달린다. 악바리, 대검을 뽑아, 캔버스 천막을 '북' 찢고 안으로 뛰어든다.

남기성이 악바리를 보고 총을 쏘려 하나, 악바리가 대검을 휘둘러 남기성의 총을 떨어뜨리게 한다. 엉켜 붙는 남기성과 악바리. 둘 사이에 육박전이 펼쳐진다. 김화균의 트럭이 급커브를 틀자, 남기성이 악바리를 밖으로 집어 던진다. 땅으로 떨어지는 악바리, '악' 소리를 지르며 악을 쓴다. 따라오던 하룡의 장갑차가 악바리를 깔아뭉개며 지나간다.

또다시 코너를 도는 김화균의 트럭.

96. 인천 시내 양복점 앞 골목 (일차선 도로) - 계속

김화균의 트럭이 드디어 천달중의 시선에 나타난다. 천달중과 오대수가 눈을 맞추며 '올 것이 왔다'는 표정을 짓는다. 오대수, 천달중에게 앞으로 조금씩 나가라고 손신호를 보낸다. 천달중, 액셀을 살살 밟으며 앞으로 조금씩 전진한다.

드디어, '썩썩'하며 김화균의 트럭이 그들 앞을 통과한다. 천달중, 썩썩하게 액셀을 밟아 길을 막고 멈춰 선다. 순간, 뒤쫓아오던 림계진의 장갑차와 '뺑' 하고 부딪힌다. 도미노처럼 추돌하는 인민군 차량들. 그 충돌로, 천달중의 화물칸에 쌓여있던 목재들이 한꺼번에 우르르 쏟아져 길을 메워버린다.

피투성이인 천달중, 충격에 비틀비틀 트럭에서 내리려다 그만 무릎이 꺾이고 만다. 폴짝 주저앉는 천달중. 그때, 오대수의 지프가 천달중의 트럭 옆에 '깹!' 선다.

천달중: 도련님! 가시라고요!

오대수, 지프에서 내려 트럭으로 달려가 천달중을 끌어내리려 한다.

천달중: 전 팬찮습네다! 어서 도망치시라고요!

오대수: 시끄러!

천달중: 도련님은 꼭 사셔야 됩네다!

오대수: 시끄러! 일어나!

오대수, 천달중을 끌어내려 지프에 싣고, 돌아서는 순간, 부채만한 주먹이 그의 얼굴을 강타한다. 하룡의 주먹이다. 겨우, 정신을 차리며, 고개를 쳐드는 오대수. 하룡의 주먹이 연이어 오대수를 강타한다.

천달중, 지프에서 몸을 날려 하룡을 온몸으로 덮치며, 오대수에게 소리친다.

천달중: 가시라고요! 어서요!

순간, 하룡의 주먹을 맞고 쓰러지는 천달중. 곧이어, 인민군 병사들에게 포위되는 오대수와 천달중.

97. 인천 시내 거리 3 - 계속

김화균의 트럭, 림계진 일행은 따돌렸으나, 다른 인민군 트럭 2 대가 저쪽에서 추격하고 있다. 인민군 트럭을 향해 기관총을 쏘대는 장학수.

김화균의 트럭, 급커브를 튕다.

98. 인천 시내 거리 4 - 계속

김화균의 트럭이 커브를 틀자, 저쪽에 지진표를 비롯한 켈로대원들의 바리케이드가 보인다.

김화균의 트럭이 바리케이드를 통과함과 동시에 연막탄을 까던지는 지진표와 켈로대원들. 따라오던

인민군 차량들, 시야가 흰색 연막탄으로 뿌여지자, 급정거를 한다. 순식간에 벌어지는 시작되는 시가전. 마치 안개 속에서 유령이 나타나듯 불쑥 튀어나왔다 갑자기 사라지는 형체들...⁹

99. 인천 주택가 (맨홀) - 계속

한편, 김화균의 트럭에서 뛰어내리는 남기성. 장학수와 강봉포가 류장춘을 남기성의 등에 업혀준다. 자욱한 연기 속을 뚫고 이동하는 그들. 김화균도 운전석에서 내려 그들을 뒤따른다. 김화균, 심하게 절룩인다. 맨홀을 찾아, 뚜껑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땅속으로 사라지는 그들. 김화균이 총을 들고 주위를 계속 살피다가 마지막으로 사라진다. 닫히는 맨홀 뚜껑.

100. 인천 시내 거리 4 - 계속

눈앞이 안 보이는, 연기가 자욱한 거리에서 시가전을 펼치는 켈로대원들과 인민군 병사들. 하얀 안개를 배경으로, 여기저기 붉은 피가 안개를 가르며 솟구친다. [SLOW-MOTION]

누군가의 시선을 통해 뼈뼉하게 기울어 보이는 무언가: 서서히 연막이 걷히며 드러나는 거리. 서있는 자가 없다. 인민군 병사들, 켈로대원들, 모두 죽어있다. (지진표와 몇몇은 저 멀리 골목으로 탈출하고 있다.)

이 거리에 우뚝 선 누군가가, 쓰러져 죽어가는 켈로대원의 시야에 들어온다. 분노를 삼키며 피바다가 된 거리를 노려보는 림계진...

101. 지하 비밀통로 - 계속

플래시를 켜고 하수도 통로를 걸어가고 있는, 장학수 일행. 남기성, 류장춘을 업고 이동 중이다. 조금 지나자, 비좁은 통로가 나온다. 비좁은 통로를 계속 걸어가는 그들. 잠시 후, 동문당 지하실 비밀문 앞에 선다. 강봉포, 비밀문에 무전 치듯 두들기면서 암호를 교환한다. 비밀문이 열린다. 최석중과 김화영이 서있다.

최석중: (남기성에 업힌 류장춘을 보고는) 이게 물건입니까?

장학수: 네.

김화영: 들어오시라요.

장학수 일행, 동문당 지하실 안으로 들어간다. 닫히는 비밀문.

102. 동문당 지하실 - 계속

최석중, 서둘러서 마이크로폰을 착용하고 무전기를 켜다.

최석중: (빠르고 절도 있게) 여기는 낚시꾼. 부두 나와라. 오버.

‘부두’ 쪽: (헤드폰을 뚫고 들려오는 미세한 응답소리) 여기는 부두.
감도 양호. 보고하라, 낚시꾼. 오버.

최석중: 물건 도착 완료. 상태 양호. 수송방법 요청한다. 오버.

최석중의 마이크로폰의 전선을 타고 내려가며 들려오는 소리들: 지지직! 웅얼거리는 목소리들 (경상도 말, 영어 등등...)

103. 통화 이미지 - 계속

정신 없이 쏜살같이 ‘지지직’거리며, 보였다 안보였다, 주파수의 파동에 반응하듯 보여지는 이미지:

- 부산의 켈로 본부의 클라크 대위가 수화기를 들고 통화한다.
- 미군 정보장교가 수화기를 들고 긴박하게 통화한다.
- 이를 지켜보는 맥아더와 에반스, 발렌타인, 말이 없다.

⁹ 초현실적인 느낌으로

- 국군 정보장교가 수화기를 들고 긴박하게 통화한다.
- 부산 공군기지 내 미공군 장교가 수화기에 소리친다.
- 맥아더 수화기를 든다. (적막)

104. 산속 - 오후

밧줄에 묶이는 류장춘의 손. 켈로대원들이 류장춘을 두 나무 사이에 밧줄로 매단다. '자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영문을 몰라 불안해하는 류장춘, 그의 입은 여전히 봉대로 봉해져 있다. 그걸 지켜보고 있는 최석중과 김화영.

김화영: 짱짱하게 매달라우. 안 그럼 이 젊은 동무래, 빈대떡
 된다우.

최석중: 암마! 빈대떡 되고말고...

그 말에, 류장춘 더욱 헛갈린다. 그때, 숲 너머에서 '우웅!' 거리는 저음의 웅장한 소리가 들려온다. 그러자, 최석중과 김화영, 그리고 켈로대원들, 류장춘에서 멀리 떨어진다. 더더욱 영문을 몰라, 불안에 떠는 류장춘.

순간, 숲을 빗자루 질 하듯 쓸며 솟구치는 거대한 수송기. 류장춘, 기겁한다. 수송기의 밑엔 길다란 후크가 장착되어 있다. 수송기, 후크로 류장춘의 밧줄을 채간다. 상공에 매달린 채 날아가며 하나의 점이 되어 사라지는 류장춘¹⁰.

105. 인천 인민군 방어지구 사령부, 취조실 - 밤

천달중 앞에 림계진이 앉아있고, 오대수 앞에 하룡이 앉아있다. 천천히 가죽장갑을 끼는 하룡. 림계진, 담배를 피우며 천달중에게 말한다.

림계진: 니가 머슴이고, (오대수를 가리키며) 니가 애 주인이고.
 그러니까, 넌 종이고, 노예고. 니 아버지도, 애 아버지의
 종이고, 노예고, 머슴이고. 니 아버지가, 애 아버지의
 개고, 너는 애의 소고. 그러니까, 애 아버지가 니
 아버지한테 말했어. '도련님을 살려라.' 그래서, 넌 애
 살리러 군대에 왔고, 총 쏘고, 업어주고, 인절미 주고.

림계진, 천달중의 코 앞에 대고 작은 소리로 말한다.

림계진: 끝까지 살려보라우. 장학수 어딴나?
천달중: 모릅네다.

하룡, 오대수를 날린다. 벽에 튀는 붉은 피. 오대수, 코피가 터져 나온다.

림계진: 니들은 나한테 잡혔고. 내 부관은 너희들이 잡아갔고.
 팬찮아. 그런거지 뭐. 어차피 군인들은 소모품 아니잖아?
 쏘라면 쏘고, 죽으라면 죽어야디. 난 니네한테 관심
 없어. 장학수 어딴나?

천달중: 모릅네다.

하룡, 오대수를 또 날린다. 피투성이가 되는 오대수. 천달중, 오대수를 보며 괴로워한다.

림계진: 다 팬찮아. 내 부관 잡아간 것도 팬찮고, 내 부하들 죽인
 것도 팬찮고, 나를 속인 것도 팬찮아. 전쟁이니까 그럴
 수 있어. 안 그래? 그러니까 장학수, 장학수 어딴나?

¹⁰ 황해 해주에서 실제로 있었던 수송 작전임

대답을 안 하는 천달중. 그러자, 하룡이 또 오대수를 날린다.

천달중: 말하셨습니다.
오대수: 야! 천달중! 이 쌍노무새끼!
림계진: 쌍놈?

주위의 인민군들, 모두 웃는다. 림계진도 같이 떠들썩하게 웃는다. 하룡, 오대수를 연거푸 갈긴다.

오대수: (피를 토하며) 절대 불지마!
천달중: 할 수 없습니다.
림계진: 말하라우.
오대수: 우린 어차피 죽어! 절대 불지마!
림계진: 빨리 말하라우.
오대수: 안돼!
천달중: 간석동 132 번지입네다.

피를 흘리며 괴로워하는 오대수.

림계진: 수고했다우.

림계진, 담배에 불을 붙여 천달중 입에 물려준다.

106. 인천 간석동 132 번지 - 밤

림계진의 지시를 받으며 인민군 병사들이 멀찌기서 포위하여 점점 포위망을 좁혀간다. 드디어 집안으로 잠입해 들어가는 인민군 병사들. 집은 텅 비어있고 방에서 아기 돼지 세마리가 꿀꿀거리고 있다. 림계진, 분노한다.

림계진: (하룡에게) 내일 낮 12 시에, 인천시청 앞 광장에서
공개처형 시키라우.

림계진, 말을 마치고 가버린다.

107. 동문당 - 밤

림계진 지프와 인민군 병사들을 태운 트럭이 동문당 앞에 멈춰 선다. 인민군 병사가 문을 '팡팡팡!' 마구 두드린다. 잠시 후, 문을 여는 한채선. 림계진, 다짜고짜 한채선의 머리채를 낚아채며 질질 끌고 안으로 들어간다. 동시에 하룡과 인민군 병사들이 동문당 구석구석을 샅샅이 수색한다. 쌓아둔 책을 넘어뜨리며 뒤지느라, 실내가 이내 엉망이 된다.

림계진, 한채선을 벽에 밀어붙여, 목을 한 손으로 썬다. 작게 말한다.

림계진: 넌 마음에 안 들어.

한채선의 목을 조이는 림계진. 한채선, 퉁퉁거린다.

림계진: 평소에 안 맞던 주사를, ('빡!' 때리며) 오늘은 두
대씩이나. ('빡!') 하필이면, 왜 그 시간에? ('빡!')
넌 알고 있었지?

한편, 하룡, 1 층의 자개농의 문을 연다. 자개농 안엔 옷들이 가지런히 걸려있다. 동시에, 인민군 병사들이 마루바닥을 두드리며 무언가를 찾고 있다. 자개농의 옷들을 천천히 चे끼는 하룡. 긴장된 순간... 수상한 눈빛의 하룡, 자개농의 흠과 틈새를 손으로 더듬으며 뭔가를 찾아내려 한다.

108. 동문당 지하실 - 계속

장학수와 남기성, 강봉포, 총을 뽑아 들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다. 한채선의 신음소리를 들으며 괴로워하는 장학수.

109. 동문당 - 계속

림계진, 한채선의 얼굴을 또다시 강타한다.

한채선: 의사선생님 지시였어요. 썩썩.
림계진: 지시라고? 누구?
한채선: 백봉석 선생이요. 백봉석. 썩썩.

한편, 하룻, 드디어 자개농의 벽면을 밀러는 순간, 림계진의 소리가 들려온다.

림계진: 상사! 하룻!
하룻: 네!
림계진: 백봉석이한테 알아봐.

110. 인천 시립 병원, 의사 집무실 - 계속

의사가운을 입은 백봉석이 수화기에 대고 말한다. 차분하고, 젊었다.

백봉석: 예, 맞습니다. 제가 지시했습니다. 혈압 강하제를 투여해야만 했습니다. 두 번째 주사는...

111. 동문당 - 계속

하룻, 전화기를 내려놓으며 림계진에게 보고한다.

하룻: 맞다고 함네다.

림계진, 사정없이 연이어, 한채선을 패기 시작한다. 통통 부어 오르고 찢어지는 한채선의 얼굴. 마지막 주먹을 날리는 림계진. 한채선, 쓰러진다. 쓰러진 한채선을 군화로 짓밟아버리는 림계진.

림계진: 철저히 조사하겠어. 이제부터 넌 관찰대상이야.
(하룻에게) 가자우!

림계진, 씩씩거리며 나간다. 뒤따라 나가는 하룻과 인민군 병사들. 한채선, 혼자 남겨진 채 쓰러져있다.

112. 동문당, 한채선의 방 - 새벽

아수라장이 되어있는 동문당. 핏물이 번지는 대야의 물. 물수건으로 한채선의 상처를 닦아주는 장학수. 한채선의 예쁜 얼굴이 아작이 났다. 찢어지고, 통통 붓고, 얼굴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다. 분노와 울분이 뒤섞인 장학수의 표정, 그는 말이 없다. 한채선, 오히려 표정이 담담하다. 장학수, 숨에 알코올을 듬뿍 묻혀, 한채선의 얼굴에 발라준다.

한채선: 간호원해도 되겠어요. 아플까 봐 살살... 손이 섬세하세요. 우리는 환자 상처, 막 씻고 닦고 그러는데. 거울 좀 줘보세요.

장학수: 안 보는 편이 낫습네다.
한채선: 줘봐요.

할 수 없이 거울을 건네는 장학수. 한채선, 거울을 보며 말한다.

한채선: 도망가고 싶겠어요? 나한테서.

장학수, 웃는다.

한채선: 빨리 도망치세요. 기회는 지금뿐이 없어요. 이제 잡히면 안 놔줄 거예요.

장학수: (웃으면서) 테꾸 말하지 마시라요. 아팠네다.

한채선: 안 아파요. 상처는 아물잖아요. 더 많은 상처받은 사람들이 봤어요. 아물지 않는 상처를 받은 사람들... 당신도 상처가 있는 사람 같아요.

장학수: 난 상처 없습네다.

장학수, 여전히 알코올 숨으로 한채선의 상처를 소독하고 있다. 갑자기 '아! 아!' 신음소리를 내는 한채선.

장학수: (가슴 아파하며) 아픈니까?

한채선: (몹시 아파하며) 안 아파요!

장학수: 정말 안 아픈니까?

한채선: 아파서 미치겠어요. 아픔을 잊게 재미난 얘기 좀 해주세요.

장학수: 난 재미난 얘기가 없습네다.

한채선: 군인 되기 전엔 뭐했어요?

장학수: 모스크바에서 공부했습네다.

한채선: 무슨 공부요?

장학수: 맨날 책만 읽었어요. 정치공부도 하고, 사회공부도 하고.

한채선: 막시스트?

장학수, 고개를 끄덕인다.

한채선: 공산주의자? '빨!갱~이!'예요?

잠시 머뭇거리는 장학수, 다시 고개를 끄덕인다.

장학수: 옛날에는.

한채선: 지금은요?

장학수: 지금은 군인입네다. '빨!갱~이!'와 싸우는.

한채선: 왜 전향했어요?

장학수: (잠시 고민하다) 속았습네다.

한채선: 네? 속았어요?

장학수: (나직하나 단호한 어조로) 나와 생각이 다르다해서, 모조리 죽일 순 없잖습니까?

장학수의 표정엔 아픔이 담겨있다. 한채선, 장학수를 바라본다. 장학수, 소독약으로 치료를 계속한다.

113. 인천 시청 앞 광장 - 정오

광장에 많은 군중들이 모여있다. 립계진, 단상에 앉아있다. 하룡, 뒤에 서있다. 그때, 오대수와 천달중이 인민군 병사들에게 질질 끌려 나온다.

114. 동문당 3층 - 계속

3층에서 시청 앞 광장을 보고 있는 장학수, 남기성, 강봉포. 그들, 오대수와 천달중이 사형대에 묶이는 것을 처연히 보고 있다. 비통한 그들의 표정.

115. 인천 시청 앞 광장 - 계속

인민군 병사들, 오대수와 천달중을 사형대에 묶어놓고, 천달중만 까만 천으로 눈을 가려준다. 시청 창가에서 사형집행 장면을 보고 있는 립계진.

인민군 장교: 거총!

형대로 선 6 명의 인민군 병사들, 소총의 개머리 판을 어깨에 대고 오대수와 천달중을 겨눈다.

천달중: 도련님, 두려워 마시라요. 지금 저기 어디선가
장대위님과 우리대원들이 우리를 보고 있을 겁니다.
용기를 잃지 마시라요.

오대수: 걱정 말라우. 옆에 니가 있는데 걱정이 뭐가 있겠어?

천달중: 도련님, 고맙습니다.

오대수: 또 보자우. 그땐 내가 널 모실테니까네.

오대수, 천달중을 본다. 눈이 가려진 채 오대수 쪽으로 고개를 돌리는 천달중, 희미한 미소를 날린다.

116. 동문당 3 층 / 인천시청 앞 광장 - 계속 [교차]

남기성, '사의 찬미' 나직이 부르기 시작한다. 그러자, 강봉포가 따라 부른다. 장학수도 따라 부른다.

대원들: (노래) 광막한 황야에 달리는 인생아...
너의 가는 곧 그 어데냐...

순간, 총성이 수없이 들리며, 힘없이 고개가 꺾이는 오대수와 천달중.

대원들: (노래) 쓸쓸한 세상 험악한 고해에...
너는 무엇을 찾으러 가느냐...

림계진, 자리에서 일어나, 오대수와 천달중을 향해 걸어간다.

대원들: (노래) 눈물로 된 이세상에...
나 죽으면 그만일까...

오대수 앞에 선 림계진, 권총을 뽑아 오대수의 머리에 확인 사살을 한다. '탕! 탕! 탕!'

대원들: (노래) 행복 찾는 인생들아...
너 찾는 것 설움...

천달중 앞에 선 림계진, 천달중의 머리에 확인 사살을 한다. '탕! 탕! 탕!'

117. 학살 몽타주

'사의 찬미'가 장송곡¹¹으로 장엄하게 울려 퍼지며...

인천 시내 거리:

길거리에 펼쳐지는 피의 바다. 켈로 색출작전이 펼쳐지며 여러 인천시민들 현장 사살된다.
도망치다 죽는 사람. 저항하다 죽는 사람. 어느 건물에서 두 손 들고 끌려 나오는 켈로 요원들.
시계방을 급습하는 인민군 병사들. 허나, 시계방은 텅 비어있다. 시계 추들만 흔들거리고 있다.

연합군 부산 정보부:

한편, 만신창이가 된 류장춘, 연합군한테 가지각색의 고문을 당하고 있다. 끝까지 불지 않는 류장춘, 그때마다 고문이 더 거세진다.

인천 외곽, 들판:

켈로 요원 30 여명이 묶인 채로, 들판에서 집단 사살 당한다. 하룻, 쓰러진 쓰러진 시체의 주머니를 뒤지다 켈로부대의 '에이전트 왕' 뺑지를 발견한다.

¹¹ "Waltz Donauwellen" (by Ion Ivanovici)

하룻, 림계진에게 켈로부대 뺏지를 건넨다...

인천 시청 앞 광장:

켈로 뺏지를 손에 쥔 림계진, 인천 시청 창가에 다시 서있다. 창 밖을 내다보며 인천시내를 둘러본다. '장학수는 어디 있을까?'

광장에는 아직도 서있는 상태로 사형대에 묶여있는 오대수와 천달중의 시체가 보인다. 짙은 먹구름이 드리우며, 천둥소리와 함께 비가 내리기 시작한다.

118. 동경항 - 낮

동경항에 비가 내리고 있다. 동경항을 가득 메우고 있는 수많은 함정들이 보인다.

자막: 1950 년 9 월 11 일

출항대기 중이다.

에반스: [안타까운 소식이 있습니다. 태풍 제인이 고베항을 지나가며, 정박 중이던 7 척의 군함을 파괴시켰습니다. 또 연이어, 미 공군기상대는 새로운 태풍 '케지아(KEZIA)'가 9 월 12 일에서 13 일 사이, 대한해협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케지아는 중심최대 풍속이 120 노트에 달하는 A 급 태풍입니다.]

맥아더: [인천의 만조일은?]

에반스: [9 월 15 일입니다. D-DAY 를 늦추실 거라면 출항 전에 지금 하셔야 합니다.]

맥아더: [에반스!]

에반스: [예.]

맥아더: [왜 있지도 않을, 미래의 일에 겁먹고 그러나?]

에반스: [죄송합니다.]

맥아더: [우린 분명 한번씩 죽어. 그렇다고, 맨날 죽음만을 생각하며 벌벌 떨며 살순 없잖나? 특히 군인은!]

에반스: [시정하겠습니다.]

맥아더: [물론 부관은 지휘관에게, 작전의 명암을 폭넓게 보고해야 돼. 허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부관의 덕목은, 지휘관에게 항상 희망과 용기를 불어 넣어 줘야 해. 왜냐? 지휘관은 늘 패전의 악몽에 시달리니까.]

에반스: [꼭 시정하겠습니다.]

맥아더: [출항해.]

에반스: [알겠습니다.]

잠시 후, 드디어 출항하는 함정들.

119. 타이페이 앞바다 - 낮

태풍이 타이페이를 강타하고 있다. 쓰러지는 거목들... 북상하는 태풍...

120. 평양, 최고사령관 집무실 - 낮

창 밖에 비가 내리고 있는 것이 보인다. 림계진, 최고사령관을 만나고 있다. 최고사령관, 림계진에게 보고서 봉치를 들어 보이며 말한다.

최고사령관: 사방팔방 배로 기어들어오고, 비행기로 쏟아 붓고,
불타고, 난리다 난리. 이게 다 그 보고서야!

림계진: 그 쪽은 다 가짜입니다. 진짜는 아직 안 터졌습니다!

최고사령관: 이것 보라우.

림계진: 인천에 간첩단을 보내고, 시가전까지 펼치면서, 제
부관을 납치해 갔습니다. 그자들은 아주 잘 훈련된
요원들이었습니다. 최고사령관 동지, 이래도 인천이
아니라는 겁니까?

최고사령관: 간첩단은 사방팔방 다 깔려있어. 맨날 내 일 보던
임선실이기도 첩자였잖아!

림계진: 제 말 좀 믿어주시라요! 나도 최고사령관 동지 못지않게
우리 인민공화국의 승리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최고사령관: 알았어! 알았어! 내 보내주잖아!

최고사령관, 중국에서 온 첩보보고서를 보여주며:

최고사령관: 중국 정보국에서도 인천에 상륙작전이 있을거라는 정보가
들어왔다. '인천방어지구사령부'에 하달하는 전투명령
1 호다. 인천의 방어설비 구축을 9월 15일 전에 반드시
완료하라.

림계진: 기필코 완수하겠습니다.

최고사령관: 책임지고 막아내라우. 낙동강 뚫을 때까지. 가보라우!

림계진, 벌떡 일어나 거수경례를 하고 나간다. 최고사령관, 일어나 창 밖의 비를 보며 딜레마에
빠진다.

121. 인천 창공 - 낮

비 내리는 창공. 연합군 폭격기들이 918 해안포연대와 '꽃밭'을 계속 폭격한다. 아비규환이 되는
'꽃밭.'

122. 망망대해 - 낮

비 내리는 바다.

항공모함 4 척과 군함 260 척이 망망대해를 새까맣게 물들이고 있다. 에반스, 항공사진을
맥아더에게 보여주며 보고한다.

에반스: (계속 항공사진을 넘기며) [류장춘의 자백에 따라,
'꽃밭'을 이틀간 계속 폭격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항공 정찰에 의하면 여전히 인민군 트럭들이 드나드는
것이 자주 포착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요새화된
지역이라. 공중 폭격으로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맥아더: [그럼, 대안은?]

에반스: [마땅한 방법이 없습니다. 직접 타격하는 수밖에...]

맥아더: (잠시 생각을 정리하다가) [X-RAY에게 지시하라.]

기록병사 썩썩하게 노트하기 시작한다.

맥아더: [D-DAY 00시까지, 팔미도 등대의 불을 밝혀 상륙함대를
유도하라. 그리고, 추가로 X-RAY에게 지시하라.
'꽃밭'의 지하요새를 찾아, 침투해 타격하라. BEACH

GREEN 상공에 예광탄으로 성공여부를 알려라. 이 말은 꼭 전해라. '신의 은총이 있기를.'

123. 켈로의 새로운 아지트 - 낮

무전을 받는 최석중. 무전을 다 받고 나서 깊은 생각에 잠긴다.

124. 동문당 지하실 - 낮

최석중, 장학수와 대원들을 만나고 있다. 옆에 지진표의 모습도 보인다.

최석중: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이 감행되네다.

장학수와 대원들, 말없이 최석중의 말을 듣고 있다.

최석중: 본부로부터 D-DAY 자정까지 완수해야 할 두 가지의 임무를 받았습네다. 하나는 팔미도의 등대를 켜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꽃밭'의 지하요새를 찾아 파괴하라는 명령입네다. 알다시피, 우린 거의 궤멸상태입네다. 두 가지 임무를 동시에 완수하기는 어렵습네다.

일동침묵.

장학수: (조용히) 팔미도의 등대를 지키는 적은 얼마나 됩네까?

최석중: 2개 분대, 20명 정도 될겁네다.

장학수: (강봉포에게) '꽃밭'의 병력은 얼마나 되지?

강봉포: 1,568명이었습네다.

장학수: (최석중에게) 우리가 '꽃밭'을 맡겠습네다.

최석중: (고개를 끄덕이며, 비장하게) 맥아더 장군께서 꼭 이 말을 전하라고 했습네다. '신의 은총이 있기를.'

장학수, 묵묵히 고개를 끄덕인다.

125. 동문당 3층 - 낮

엄청난 비가 퍼붓고 있다. 장학수, 창 밖을 보고 있다. 저 멀리 시청 앞 광장에도 비가 퍼붓는다. 여전히 묶여있는 오대수와 천달중의 꺾인 머리에도 비가 퍼붓고 있다. 한채선, 장학수를 뒤에서 끌어안는다.

126. 인천 앞 바다 - 낮

엄청난 태풍이 비바람을 세차게 뿌려대고 있다. 성난 짐채만한 파도가 항만을 강타한다.

소해정들이 파도를 가르며 나타난다. 기뢰를 터트리는 소해정. 기뢰들이 곳곳에서 터지며, 엄청난 물기둥을 만들어 내고 있다. '핑! 핑! 핑! 핑!'

127. 인천 앞 바다, 해안 - 계속

트렌치코트형의 우비를 입은 림계진, 망원경으로 바다를 보고 있다. 기뢰가 터지면서 만들어내는 물기둥들을 바라보며, 분노에 치를 떤다.

128. 남해 - 낮

폭풍 속의 바다. 연합군의 함정들이 거친 파도에 출렁거리며, 어지러운 항해를 계속 하고 있다. 비장한 표정의 맥아더.

에반스: [현재 케지아는 제주도 남단 400킬로 지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내일 밤이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맥아더: [태평할 때도, 고비는 늘 있게 마련이지.]
 에반스: [네, 그렇습니다. 케지아는 좋은 이름입니다. 제 첫사랑 이름이었습니다.]
 맥아더: [하하! 멋진 거짓말이군. 하지만 나한테 희망을 줬어.]
 에반스: [감사합니다.]
 맥아더: [사람들은 나더러, “전쟁을 즐긴다”느니, “전쟁광”이라느니, “전쟁을 쫓아다닌다”느니, 그러는데, 난 아이러니하게도, 항상 패배의 악몽에 시달려왔지.]
 에반스: [하지만 장군님께서, 패배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승리하지 않았겠습니까?]

고개를 끄덕이는 맥아더, 오랜만에 기분 좋게 웃는다.

맥아더: [에반스, 내가 늙어 보이냐?]
 에반스: [아뇨.]
 맥아더: [이게 나의 마지막 항해일까?]
 에반스: [아뇨!]
 맥아더: [세월은 피부에 주름이 지게 하고, 포기는 영혼에 주름이 지게 한다¹². 우린 인천 땅을 밟아야 돼. 절대 포기 할 수 없어.]

함정들의 위태로운 항해가 계속되고 있다.

129. 인천 인민군 방어지구 사령부, 사령관실 - 밤

유엔군의 폭격이 계속 되고 있다. 당장이라도 무너질 듯 요동치는 사령관실. 폭음과 함께 건물이 진동한다. 천정에서 시멘트 먼지가 떨어진다.

사령관실의 전화들이 정신 없이 울리고, 피해보고가 여기저기서 들어온다.

나갈 준비를 하는 림계진. 거울을 보며 트렌치코트형 장교용 우비를 입고, 목에는 쌍안경을 두른다. 마지막으로 모자를 쓰는 림계진, 따발총을 챙겨 든 뒤 사령관실을 나선다.

130. 켈로의 새로운 아지트 안 - 밤

장학수, 미군이 지급해준 O.D. (OLIVE DRAB) 색의 미 해군전투복을 입고 있다. 새로 지급받은 M43 버클부츠를 신고, 목에는 얼룩무늬 낙하산 천으로 만든 스카프를 두르고 있다. 그리고, 왼쪽가슴에 반듯하게 ‘에이전트 왕’ 뿔지를 착용한다.

장학수, 허리에는 탄입대를 차고, M2C 소총(접철식 개머리판), 콜트 45 권총, 수류탄, 작은 뮤세트백을 어깨에 걸쳐 맨다.

장학수, 인민군 전차병용 얼룩무늬 판쵸우의를 뒤집어 쓴다. 이 모든 장비가 인민군 판쵸우의로 인해 은폐된다.

131. 인천 인민군 방어지구 사령부, 연병장 - 밤

계속 쏟아지는 비. 연병장에 집결해 있는 인민군 병사들, 모두가 우의(얼룩무늬와 카키색)를 입고 있다. 장학수의 우의와 동일한 형태다. 트럭, 장갑차, 전 병력과 장비가 총 집결해있다.

림계진, 비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으며, 사이드카에 올라탄다.

림계진: 해안 요새로!

¹² "Age wrinkles the body. Quitting wrinkles the soul."

운전병이 사이드카를 출발시킨다. 그 뒤를 따르는 인민군 차량 대열. 여전히 여기저기 폭탄이 터진다.

132. 켈로 새로운 아지트 밖 - 밤

장학수와 최석중, 아지트의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온다. 뒤따르는 대원들. 야전 막사와 건물이 있는 그들의 아지트, 아지트 앞에는 작은 부두가 있다. 부두에는 전통 한선을 개조한 공작선이 정박해 있다.

밖엔 비가 여전히 세차게 퍼붓고 있다. 멀리 인천 시내가 한눈에 들어온다. 인천시내 곳곳에서 폭탄이 터지며, 폭음소리가 들려온다.

아지트를 나와 양쪽으로 갈라지는 켈로대원들. 이때, 장학수가 한채선에게 나직이 묻는다.

장학수: 언제였지요? 인천시청에서?

한채선: (웃으며) 1950년 12월 31일 낮 12시. 인천시청 앞 광장.

장학수: (싱긋 웃어 보이며) 잊지 마시지요.

한채선: 안 잊을게요. 영원히.

장학수: 또 봅세다. 못 보면 아쉬울 겁네다.

한채선, 장학수를 힘껏 껴안는다. 대원들 모두 놀란다.

장학수와 한채선, 서로의 길로 발걸음을 옮긴다.

최석중, 김화영, 김화균, 지진표, 한채선 등등은 공작선에 올라탄다. 공작선엔 커다란 무반동 총이 위장된 채 탑재되어 있고, 무전기의 안테나는 돛대로 이어져있다.

판쵸우의 차림의 장학수, 남기성, 강봉포, 인민군 지프에 올라탄다. 운전석의 강봉포가 장학수에게 묻는다.

강봉포: 어디로 갑니까?

장학수: '꽃밭'으로.

남기성: 작전은 뭘니까?

장학수: 없다.

비 내리는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장학수의 지프.

133. 서해 - 밤

태풍 '케지아'가 계속 세차게 불어온다. 맥아더가 탄 항공모함에도 세찬 파도가 치고 있다. 항공모함이 흔들거리며 위태위태하다. 연합군 함대에, 위기가 몰려온다.

비바람을 뚫으며 복진하는 함대.

에반스: [저희 함대가, 인천 앞 바다 20킬로 지점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맥아더, 시계를 본다. '22:07.'

자막: H-HOUR 2시간 전.

맥아더, 애써 초조한 기색을 감추고 있다.

134. 인천 앞 바다 - 밤

빛속을 가르며 달리는 공작선. 최석중, 한채선에게 M3 GREASE GUN 기관단총을 건넨다.

최석중: 이거 쏘봤습니까?

한채선: 네! 아, 아뇨.

최석중, 번개 같은 손놀림으로 탄창을 빼서 머리에 툭툭치고 다시 결합해, 노리쇠를 후퇴시킨 뒤:

최석중: 넵다 갈겨버리시라요.

최석중, 사격자세를 취한다. 한채선, 놀라운 암기력으로 그대로 따라 한 뒤, 사격자세까지 취한다.

135. 인천 시청 앞 광장 - 밤

장학수와 대원들을 태운 지프, 비 내리는 광장을 가로질러 가고 있다. 그때, 인천 시청 광장을 지키는 탱크 2 대 중 한대가 급유를 하기 위해 서있는 것을 본다. 급유를 마친 전차병들이 해치를 열고 탱크로 들어가 시동을 건다. 부르릉. 장학수와 대원들, 그걸 보는 순간,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급커브를 틀어 탱크를 향해 정면으로 질주한다.

탱크 앞에 멈춰서는 지프. 탱크에 타고 있던 전차병이 지프에서 내리는 장학수와 대원들을 의아하게 바라본다.

장학수, 안주머니에서 종이를 꺼내 보이며, 탱크 위로 올라간다. 전차병, 종이를 읽으려는데 아무것도 쓰여지지 않은 빈 종이다. 전차병, 영문을 몰라 장학수를 의아하게 쳐다본다. 순간 전차병의 목을 따는 장학수. 단숨에, 전차병을 들어올려 밖으로 던져버린다.

장학수, 남기성, 강봉포, 모두 대검을 빼들고 탱크 안으로 들어간다. 탱크 안에 있던 전차병들을, 순식간에 제압해 버리는 장학수와 대원들. 전차병들의 목을 따고, 가슴에 칼을 꽂은 후, 탱크 아래로 시체를 버린다. 남기성과 강봉포, 판초우의를 벗어버린다. 이에 드러나는 둘의 켈로군복.

탱크 안:

강봉포, 조종석을 차지한다. 장학수, 강봉포에게 말한다.

장학수: 가자우!

탱크, 그래도 안 가자:

장학수: 가자우!

강봉포: 갈 줄 모릅네다. 1 분만 주시라요.

남기성: 배웠잖네?

강봉포: 미제 땅크하고는 다릅네다.

강봉포, 페달을 세게 밟는다. ‘우앙!’ 공회전하는 요란한 엔진음. 강봉포, 깜짝 놀라 발을 떼고 두리번거리면, 자전거 브레이크 핸들처럼 생긴 것이 달린 조종 스틱 두개가 나란히 있다. 스틱을 앞뒤로 움직여보는 강봉포. 탱크가 요동을 치며, 전우좌우로 움직인다. 스틱 두 개를 모두 앞으로 밀고 페달을 밟자, 드디어 가기 시작한다.

비를 맞으며 포탑의 전차장 석에 상체를 내밀고 주위를 둘러보는 장학수, 광장을 지나며 여전히 방치된 시체들을 바라본다. 말뚝에 묶인 채 처형당한 오대수와 천달중의 시체, 둘은 여전히 비를 맞으며 서있다.

꽃밭을 향해 거침없이 질주하는 장학수의 탱크.

136. 인천 앞 바다 - 밤

칠흑 같은 암흑. 목적지에 도달한 맥아더의 함대가 항해를 멈추고 바다에 떠있다. 비는 계속 퍼붓고 있다.

맥아더: [보이는 게 하나도 없구만. X-RAY의 진행상황은 어찌되고 있는가?]

에반스: [연락이 없습니다.]

맥아더: [등대 불을 못 밝히면 어떻게 되나?]

에반스: [상륙작전은 동이 튼 다음으로 연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맥아더: [그렇게 되면?]

에반스: [아군의 피해가 클 것입니다.]

맥아더, 시계를 본다. '23:49.' 조바심으로 가득 차고, 불안한 기색이 역력한 맥아더.

자막: 1950 년 9 월 14 일 23:49

137. 팔미도 - 계속

비는 계속 퍼붓고 있다. 산 위로 등대가 우뚝 서있다. 시동을 끈 채 노를 저어 접안하는 켈로부대의 배. 세찬 파도 때문에 전진하는데 애를 먹는다. 겨우 접안에 성공하는 배.

등대를 뒤로 하고 해안가에 설치된 견고해보이는 기관총 병커와 인민군들이 보인다. 최석중, 시계를 본다. '00:36.' 이미 자정은 지나 있다.

자막: 1950 년 9 월 15 일 00:36

최석중, 무엇인가를 결심한 듯 배에 설치된 무반동총으로 병커를 쏘아 날려 버리고 외친다.

최석중: 가자!

138. 인천 앞 바다 - 밤

맥아더가 또 시계를 보고 있다. 시간이 '01:05'을 가리키고 있다.

자막: 1950 년 9 월 15 일 01:05

비바람 속에 아직도 사방은 암흑이다.

맥아더: [한 시간이 지났네. 아직도 X-RAY 는 소식이 없나?]

에반스: [없습니다.]

맥아더: [그냥 치고 들어가는 방법은?]

에반스: [없습니다. 등대가 불을 밝혀 수로를 유도해줘야 합니다.
비어수로의 수심이 너무 얕습니다.]

맥아더: (애써 여유를 찾으며) [알고 있어.]

맥아더, 어두운 팔미도 쪽만 바라보고 있다.

139. 인천 외곽, 꽃밭으로 가는 길 - 계속

탱크가 전속력으로 달리고 있다. 탱크를 타고 있는 장학수, 남기성, 강봉포. 탱크의 엄청난 엔진소리와 진동, 빠른 속력에 도취되어있다. 아드레날린이 솟구친 대원들:

강봉포: 다 까부습세다! 이게 땅크 중에 땅크, T-34/85 땅크
아닙네까! 이제 빨갱이들은 우리한테 다 죽었습네다!

순간, 구덩이에 빠지는 탱크. 강봉포, 있는 힘껏 페달을 밟으나, 구덩이만 커질 뿐 탱크는 더 깊숙이 처박히고 만다. 그러다가 간신히 빠져 나오는 탱크.

그때, 사이드카를 타고 탱크를 추월하는 림계진, '여기 왜 탱크지?' 하고 의아해 하지만 이내 꽃밭으로 향하는 시선. 림계진의 사이드카가 무서운 속력으로 앞서서 사라진다. 뒤따르는 끝없는 인민군 행렬. 순간 경악하는 탱크 안의 장학수 일행. 소풍은 끝났다.

140. 팔미도 - 계속

등대 입구에서 총격을 가하며 극렬히 저항하던 두 명의 인민군 보조병을 최석중과 지진표가 사살한다.

등대로 진입하려 하지만 입구 문이 잠겨 있다. 수류탄을 까서 문손잡이에 끼워넣는 지진표. 일제히 문 양옆의 원형 등대 벽에 몸을 밀착해 피하는 대원들.

'황!' 수류탄이 터지며 문의 잠금 장치가 날아가고 대원들 등대 안으로 뛰어 들어간다.

141. 팔미도 등대 안 - 계속

등대 안 계단을 오르던 선두의 최석중과 지진표에게 총격이 날아 든다. 계단에서 몸을 낮춘 최석중, 수류탄 안전핀을 해제한 뒤, 1~3 까지 쉼 뒤, 힘차게 계단 위로 던져버리고 귀를 막는다. 일제히 함께 귀를 막고 몸을 웅크리는 대원들. 곧바로 격렬한 폭음과 먼지 폭풍이 이들에게 휘몰아친다.

몸을 일으켜 위로 올라가려는 순간, 밑에서 인민군 병사 4 명이 총을 쏘며 계단을 오른다. 켈로 대원들 중 마지막으로 계단을 오르던 한채선, 기관단총을 쏘대며 인민군 병사 4 명을 모두 사살한다.

드디어, 팔미도의 등대를 밝히는 최석중. 등대의 불이 칠흑같이 어두운 밤바다를 환히 비춘다.

자막: 1950 년 9 월 15 일 01 시 49 분

142. 인천 앞 바다 - 계속

에반스, 등대의 불을 보며 소리친다.

에반스: [저기 보십시오! 켜졌습니다!]

맥아더: [드디어 인천으로 가는 길이 열렸군.]

맥아더, 등대의 불을 보며, 미소 짓는다.

맥아더: [사전 포격 개시!]

에반스: Yes, sir!

힘차게 경례를 하며 돌아서는 에반스.

바다 위 함대:

갑자기 생기가 돌며 분주하게 돌아가는 함대들. 각 함대에선, 병사들의 큰 외침소리가 들려오고, 해군병사들이 함포 사격을 준비하기 시작한다. 전 함정의 모든 포들이 '윙! 윙!' 하면서 인천 방향으로 회전한다.

143. 인민군 918 해안포연대, '꽃밭'을 향하는 길 - 계속

림계진, 멀리 팔미도의 등대가 밝혀지는 광경을 보고 있다. 상륙작전이 시작되었음을 직감하는 림계진, 꽃밭 언덕 뒤쪽에 도착한다.

폭격 당한 꽃밭은 예전의 모습이 아니다. 언덕 위의 건물 중 한동은 완파, 다른 한동은 반파, 나머지 한동은 건재하다.

언덕 뒤편, 격납고를 연상시키는 거대한 철문이 열리면, 엄청난 위용을 자랑하는 무기들. 그 속으로 사라지는 림계진.

144. 인천 앞 바다 - 계속

함대에서 드디어 포들이 화염을 뿜으며 발사되기 시작한다.

포탄이 인천에 '평! 평!' 떨어질 때마다 잠깐씩 순간적으로 드러나는 인천시가지의 실루엣. 서서히 파괴되어간다.

이내 불바다가 되고 마는 인천.

145. 인민군 918 해안포연대, '꽃밭' 지하요새 - 계속

림계진, '꽃밭' 지하요새로 들어가, 전투태세를 갖춘다.

아직은 미완성이고, 꽃밭 폭격의 피해도 일부 있지만, 여전히 건재한 요새의 내부. 대구경 대포들과 카추샤 로켓트럭들의 무시무시한 위용을 드러낸다.

림계진: (하룡에게) 전포 전진 배치! 사격준비!

하룡: (큰소리로) 총~원! 전포 전진 배치! 사격준비!

일사 분란하게 움직이는 인민군 포병들, 레일을 밀며 대구경 대포들을 해안 쪽으로 전진배치시킨다. 동시에 위장막을 걷어내면, 드러나는 해안요새의 진짜 모습.

거대한 창처럼 뚫린 '포구' 앞으로 전진 배치되는 무기들...

146. 인민군 918 해안포연대, 해안 - 계속

수 십대의 박격포들이 설치된 진지가 해안을 따라 늘어서 있다. 포병들이 비를 맞으며 포구에 썩어진 커버를 벗겨낸다. 주변엔 포탄상자가 즐비하다.

그때, 장학수의 탱크가 모습을 드러낸다.

일렬로 배치된 박격포들과 인민군들을 탱크로 짓밟으며 밀고 가는 장학수. 그런 다음, '꽃밭'의 언덕을 치고 올라, 지하요새로 향한다.

147. '꽃밭' 지하요새, 안/밖 - 계속 [교차]

림계진, 전진 배치된 무기들 사이에 서서, 쌍안경으로 바깥을 내다본다. 탱크가 언덕을 돌진해 올라오고 있다. 언뜻 언뜻 보이는 탱크를 탄 장학수의 모습. 림계진, 분노와 반가움이 교차한다.

림계진: 발포! 발포하라!

인민군 대포들이 탱크를 향해 불을 뿜는다. 허나, 대포와 탱크 사이가 너무 가까워서 명중되지를 않는다.

장학수: 전진! 밟으라우! 전진!

장봉포: 포 날라웁네다! 포! 포! 포!

장학수: 괜찮아! 날래 밟으라우!

장학수의 탱크는 아래에서 위를 향해 올라가고 있고, 지하요새의 대포는 사격각도가 나오지 않아, 애를 먹는다. 박격포들 만이 탱크에 적중하지만, 탱크는 끄떡도 없다.

림계진: 명중시키라우! 빠르게버리라우!

하지만, 박격포 공격에, 해치를 닫고 요동치는 탱크 안으로 들어가는 장학수와 남기성.

장학수: 우회! 10 시방향으로! 날래 틀라우!

요새 좌측으로 우회하는 장학수의 탱크. 림계진, 마침 장학수의 탱크에 대한 사격각도가 확보되자:

림계진: 발사! 까부수라우!

지하요새의 76 미리 포와 카츄샤 로켓포가 불을 뿜는다. 76 미리 포 한발이 장학수 탱크의 포탑에 비껴 맞아 튕겨 나간다.

이 와중에, 사방에 낙하하는 연합군의 포탄들. 지옥이 따로 없다.

드디어...

장학수의 탱크가, 지하요새의 '포구'를, 탱크 포로 간헐적으로 쏘아댄다. 무너지기 시작하는 요새 포구와 내부 천정. 곳곳에서 무너지는 잔해에 깔려 죽는 인민군들.

림계진에게도 거대한 철재구조물이 떨어지나, 구사일생으로 살아 남는다. 림계진, 카츄샤 로켓포 차량에 올라타, 무너지는 '포구'를 뚫고 장학수에게 돌격한다.

엄청난 폭발과 함께 완전히 붕괴되는 지하요새. 천정의 바위와 흙더미가 무너져내려, 입구가 흙으로 막혀 지하요새가 봉쇄된다.

그때, 비가 그친다! 구름이 걷힌다.

'꽃밭'의 언덕:

림계진, 카츄샤 트럭 안에서 붕괴되는 지하요새를 보고, 분노로 이글댄다.

림계진: 놈들의 여덟시 방향으로! 로켓포 발사준비!

림계진, 명령하면, 카츄샤 트럭, 언덕을 질주해 내려가며 대각선으로 탱크를 따라붙는다.

장학수: 바다 쪽으로! 예광탄 준비!

강봉포, 힘껏 방향을 해안 쪽으로 바꾼다. 꾸역꾸역 해안을 향해 내려가는 부서진 탱크.

한편, 림계진, 카츄샤 트럭 창문 밖으로 파발총을 난사하며, 로켓포의 발포를 명령한다.

림계진: 썩 날려버려!

발사를 위해 잠시 멈춰 선 카츄샤의 로켓포 탑이 장학수의 탱크 쪽을 향한다.

해안가:

해안가로 꾸역꾸역 가고 있는 장학수의 탱크. 남기성, 포수석 해치를 열고나와 예광탄을 쏘아 올리려는데, 탱크의 요동이 심해, 쉽지 않다.

남기성: (장학수에게) 안되겠습네다! 엄호해주시라요!

장학수: 알았다! 어서 가!

남기성, 예광탄을 들고 해치 밖으로 뛰어내리려는 순간, 흰연기 꼬리를 그리며 날아드는 수십발의 로켓탄. 그 중, 한발은 엔진룸에, 또 한발은 케터필러에 명중한다. '펑! 펑!' 그 바람에 튕겨져 땅바닥으로 떨어져나가는 남기성.

장학수의 탱크는 해안포 진지의 거대한 포탄 구덩이에 사선으로 처박힌다. 기우는 탱크. 예광탄은 남기성과 함께 사라지고, 장학수와 강봉포는 충격에 잠시 움직이지 못한다.

림계진, 모든 화기들을 총동원하여 탱크를 초토화시킨다.

정신을 차리고 탱크 밖으로 탈출하는 장학수와 강봉포. 인민군 병사들, 진지에서 일제 사격을 가한다. 어마어마한 병력이다.

땅바닥에 쓰러져있던 남기성, 죽었는가 싶었는데, 벌떡 일어나 저쪽에 있는 예광탄 쪽으로 뛰어간다. 남기성을 향해 총을 쏘며 달려가는 하룡. 남기성, 하룡의 총에 한 두발 맞으나, 끄떡도 안하고 예광탄을 집는다. 하룡, 총을 쏘도 제압이 안되자 육탄공격을 한다. 둘 사이에 육박전이 펼쳐진다. 림계진과 인민군 병사들도, 둘이 엉켜 붙어 있어서 총을 쏠 수 없다.

하룡: 간나새끼! 날래 디지라우!

남기성: 종간나새끼! 작작 너덜거리라우!

결국, 예광탄을 쏘지 못하고 하룡에게 부채주먹으로 연거푸 얻어맞아 죽임을 당하는 남기성. 하룡, 그 기세로 장학수와 강봉포를 향해 총을 쏘며 다가 온다. 그런 하룡을 쏘 죽이는 장학수.

그러자, 그 동안 하룡 때문에 사격을 하지 못했던 인민군 병사들, 일제히 장학수 쪽을 향해 방아쇠를 당긴다. 곳곳에서 인민군의 총격과 폭발이 난무한다. 탱크 뒤편에 숨어, 강봉포가 예광탄을 쏘아 올릴 준비를 한다.

강봉포: (장학수에게) 됐시요! 이제 가시라요!

장학수, 강봉포를 엄호사격 한다. 하늘을 향해 예광탄을 조준하는 강봉포.

강봉포: 날래 도망치시라요!

장학수: 날래 쏘라우!

드디어, 예광탄을 쏘아 올리는 강봉포. '푸슈!' 예광탄이 하늘에서 터지며 사방이 밝아진다. 대낮같이 환하게 밝아지며, 죽은 남기성의 손에 아기사진이 쥐어져 있는 게 보인다. 순간 인민군의 표적이 되는 강봉포, 벌집이 되어 쓰러진다. 괴로움도 잠시, 장학수, 총을 쏘며 달려드는 인민군 병사들을 향해 기관총을 난사한다.

148. 인천 앞 바다 - 계속

맥아더, 예광탄을 본다.

맥아더: [상륙 개시!]

에반스: [해병대 상륙한다. 상륙정 출발하라!]

각 상륙정마다 대기하고 있는 수많은 연합군 상륙병들. 상륙정이 물살을 가르며 동시에 출발한다. 인천 앞바다를 세까맣게 물들이는 상륙정들.

항공모함에선 전투기들이 깃발을 든 신호병들의 수신호를 따라, 출격을 준비하고 있다.

149. 해안가 - 계속

림계진, 근처에 세워진 카츄샤 트럭에서 나와 부하들에게 명령한다.

림계진: 여긴 내가 처리하겠어. 동무들은 날래 지하요새를 복구하라우!

인민군들 모두 지하 요새로 이동한다. 사방에 터지는 폭탄들.

장학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포연 속에 홀로 있다. 림계진, 장학수에게로 향한다. 장학수, 구덩이에서 나오려는 순간, 들리는 총성. 총알은 탱크에 맞아 튕겨나가고, 몸을 숨기는 장학수.

이미 만신창이가 된 장학수, 거동이 거의 불가능하다. 림계진 역시 팔과 머리에 부상을 입고 있다.

기운 탱크의 바퀴 밑에 몸을 구겨 넣어 기다시피 숨은 장학수. 림계진은 경사진 탱크의 차체 상부 쪽에 비스듬히 기대있다.

탱크를 사이에 두고, 서로 대치하는 장학수와 림계진. '탕!' 장학수, 림계진의 총에 맞는다. 뿜어 나오는 피.

림계진: 장학수, 무섭나?
장학수: (고통을 참으며) 아니.

'탕!' 장학수, 총을 쏜다. 장학수의 총알이 림계진의 팔뚝을 관통한다.

장학수: 림계진, 무섭지? 무서울 거야.

'탕!' 림계진, 장학수에게 총을 쏜다. 뿜어 나오는 피.

림계진: ('탕!') 넌 버려지야. 이념도, 사상도 없는, 버려지!
장학수: ('탕!') 니 유토피아는 오지 않아. 올 수 없어.
림계진: ('탕!') 닥치라우! 변절자 주제에 뭘 말이 그렇게 많네?
장학수: ('탕!') 니 유토피아는 지옥이야. 피로 물든 지옥. 니 이념이 그렇게 소중한해? ('탕!') 니 이념을 위해 그렇게 많이 죽어야 했어? 왜? 피, 피는 소중한 거야.

림계진, 경사진 탱크를 기어올라 넘고, 장학수 앞으로 뛰어내린다. 곧바로 장학수의 가슴에 권총 한발을 박아 넣는다. '탕!' 장학수의 가슴에서 피가 뿜어 나온다.

림계진: 난 니 눈빛이 싫었어. 처음부터. 넌 너무 고결해.

림계진, 장학수의 머리에 권총을 겨누며 말한다.

장학수: (웃으면서) 부럽지? 난 니 총알이 무섭지 않아.

림계진, 총을 쏘려는 순간, 어디선가 총알이 날아와 이마에 박힌다. 한채선과 최석중과 켈로대원들, 림계진을 향해 기관총을 난사한다. 피가 솟구치며 별집이 되어 쓰러지는 림계진. 한채선, 한걸음에 달려가, 장학수를 끌어안는다.

150. FINALE: 인천상륙작전 [OPERATION: CHROMITE]

한채선의 품속에서 죽어가는 장학수. 장학수, 한채선의 손을 잡는다. 동이 터오고 있다.

장학수: (거의 안 들릴 정도로) 또 봅세다...

한채선: (엷은 미소 지으며) 그래요. 기다릴게요...

한채선, 소리 없이 흐느낀다. 하늘을 바라보는 장학수.

장학수의 눈 앞에, 연합군 전투기 한대가 날아온다. 잠시 후, 그 뒤로 하늘을 가르는 연합군 전투기들이 벌떼처럼 날아오고 있다. 일제히 폭격하기 시작하는 전투기들.

미소 짓는 장학수. 회미해지는 장학수의 시야. 점점 의식을 잃어가고 몽롱해진다. 사망이 불바다다. 아름다운 도시 인천이 아비규환이 된다. 뒤이어, 인천 앞바다를 새까맣게 물들인 연합군 함정들이 보인다. 퇴각하는 인민군들.

항공모함을 타고 망원경으로 인천을 보고 있는 맥아더. 또다시, 함포사격을 명령한다. 일제히 불을 뿜는 함포들. 이내 새빨갳게 물들여 지는 인천의 상공.

인천상륙 작전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해안가 절벽에 사다리들이 올려진다. 엄청난 규모다. 사다리를 타고 물밀듯이 넘어오는 연합군. 이 광경을 바라보던 장학수, 서서히 눈을 감는다. 장학수를 꼭 껴안는 한채선, 흐느낀다.

이윽고 맥아더, 상륙정을 타고 와, 육지에 발을 내딛는다.

151. [EPILOGUE]

인천수복: 인천 시청 앞 광장: 인공기가 내려지고, 태극기가 올라간다.

자막: 미 극동사령부 소속의 켈로부대(KLO: Korea Liaison Office)의 대원들은 “군번 없는 용사”들이었다.

뒤 배경에 에이전트 윈 뱃지가 드러나고... 다음 화면:

자막: 1948년부터 1953년까지 총 30,000여명 중 8,000명이 작전 중 사망하거나 실종되었다.

다음 화면:

자막: 한반도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한국전쟁에 참전한 국군과 16개국 유엔연합군 참전용사들에게 이 영화를 바친다.

END CREDITS¹³

음악이 흐르며 앨범 속의 낡은 전쟁 사진들이 한 장 한 장 보여진다.

- 활짝 웃는 개복쟁이 소년들
- 전우들과 어깨동무하고 미소 짓는 국군들
- 멋지게 자세를 취하고 사진을 찍는 인민군들
- 미군들과 연합군들의 사진들 (참전한 뉴욕 양키스 선수의 웃는 얼굴 등)
- 산처럼 쌓여있는 민간인들의 시체 탑
- 간난야기를 업고 있는 소녀.

THE END.

¹³ Music: "The Internationale" (Utah Phillips & Ani DiFranco)